

臺灣 布農族 · 濟州島 · 宮古島の 敘事詩와 神話 比較

김헌선*

< 차례 >

1. 비교 근거
2. 臺灣 布農族 · 濟州島 · 宮古島の 神話와 敘事詩
구체적 점검
3. 臺灣 布農族 · 濟州島 · 宮古島の 神話와 敘事詩 비교
4. 마무리

국문요약

臺灣布農族 · 濟州島 · 宮古島の 신화와 서사시는 비교신화학의 새로운 연구 과제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비교신화학의 주요 과제가 특정한 정치권력의 주도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신화와 서사시를 자랑하는 신화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점이 그간의 연구에서 진행된 잘못이 있다.

이제 비교신화학 연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신화학의 진정한 방향은 구성원의 문화주권을 복원하고 지구상에서 소외받는 제4세계 소수민족을 주목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臺灣布農族 · 濟州島 · 宮古島の 신화와 서사시는 적절한 본보기로 된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면에 잠재된 신화와 본풀이의 연구에서 생기는 진정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품게 되었다. 크게 정치적 주권의 승패에서 밀려난 쪽이 신화와 서사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기현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수민족에게 신화와 서사시는 자신의 독특한 사고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억의 역사를 담는데 진정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 역사의 패권에서 밀린 쪽이 다양한 신화와 서사시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결론이다. 소수민족의 신화와 서사시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신화주권을 복원해야 마땅하다.

주제어 : 대만포농족, 제주도, 궁고도, 제4세계소수민족, 신화주권

1. 비교 근거

이 글은 臺灣·濟州島·宮古島의 서사시와 신화를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세 곳은 섬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정하게 서사시와 신화가 전승되고 있어서 이를 주안점으로 비교하면 세 곳의 지리적 공통점 이면에 문화적 창조물인 서사시와 신화의 공통적 사유를 읽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서사시와 신화에 나타난 공통적 사고의 비교가 쉬운 과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 곳의 자료가 각기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곳의 자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공통적 사고를 드러내는 자료가 균질감이 있게 등장하지 않고, 게다가 내용이 일치점이 정밀하게 대응하는 자료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세 곳의 서사시와 신화가 비교될 만한 자료는 분명하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지역의 자료가 가지는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관점을 전환하여 야 한다. 가령 濟州島에서는 본풀이가 신화적 내용을 풍부하게 반영하여 담고 있으므로 이를 주된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濟州島의 세 본풀이는 마땅히 다를 필요가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

나 濟州島에 구전신화 역시 일부 남아 있어서 이를 보완적 자료로 삼아야 한다.¹⁾

宮古島 지역에서도 구전서사시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이에 못지 않게 구전신화가 일부 내용을 전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서로 주된 자료를 확인해야 필요가 있다.²⁾ 宮古島 전승의 자료 사정이 濟州島와 엄격하게 부합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긴요한가 반문하면서 자료를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臺灣의 서사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풍부하게 구전되는 신화를 조사하고 기록한 보고서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사시가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지만, 인접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필리핀의 경우에 서사시가 드물고, 구전신화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경우와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세 곳의 서사시와 신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첫째,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양상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두 자료가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야 하겠으나, 그러한 이상을 모두 구비

1) 김현선의, 濟州島の 서사시와 신화 비교 연구,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 정진희, 《濟州島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이경애,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후사(フサ)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제34호, 2009.

정진희, 濟州島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3) 필리핀의 소수민족이 전승하고 있는 신화의 내용을 논한 대표적인 국내 업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김민정, 필리핀 창조신화의 주요 모티프,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삼아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논의가 되는 대상을 한정하고 이 자료를 한계적으로 제한하면서 논의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 제한점을 제시하는 것이 논의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긴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신화와 서사시는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다. 신화에 전하는 내용과 서사시에 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서사시에는 의례적 엄격성과 함께 특정 집단의 주체가 역사적이고 정치적 쟁패에서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구비역사의 면모를 담고 있다. 반면에 신화에 신화적 상징과 경험만을 담기도 해서 서로 무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신화와 서사시는 배타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신화와 서사시는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서사시에 신화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설과 민담 등이 서사시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으므로 이들의 내용이 무엇이든 서사시는 신축력이 있어서 이 자료들이 서로 내용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신화와 서사시는 필요 이상으로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자료의 소통과 문제를 공유하는 갈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신화와 서사시의 자료를 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방법이 있지 않다. 일단 세 곳의 전반적 개황을 확실하게 살필 수 있는 사례의 일반적 성격이 다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한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창세의 내용을 주된 면모로 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서 이 내용의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는 자료가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가설은 본디의 고유한 신화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다른 곳에서 유입되어온 신화적 내용이 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시대적 전환과 함께 세 곳의 양상과 변천을 비교하는 것이 세 곳의 비교에서 매우 중요한 준거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디의 토박이 신화적 내용이 있는 자료는 원시적이고 고대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다. 이와 달리 외지의 떠돌이 신화적 내용이 있는 자료는 고대적인 면모와 결합하면서 이것이 특징하게 변환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방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바로 고유한 인류시원신화인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 그리고 특정한 집단의 기원신화이다. 남매혼신화는 남매가 혼인하여 특정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신화이다. 이와 달리 창세신화는 인간의 세상에 필요한 일을 창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내용의 인세차지경쟁신화소와 같은 것이 적절한 대상이 된다. 특정한 세력이 특정한 섬의 주체가 되는 신화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신화의 비교로 세 가지 사례는 매우 적절하다.

신화와 서사시의 자료를 합쳐서 비교하지만, 신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의 자료를 고유한 것과 외래의 것의 양상과 변천을 중심으로 논제를 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와 서사시를 합치는 이유는 자료의 균질감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로 한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비교해서 세 곳의 양상과 변천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臺灣·濟州島·宮古島の 서사시와 신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소하게 진행된 연구사의 정향을 반성하고, 바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요체이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 곳의 비교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교 연구는 그간 뚜렷한 공통적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했으므로 이를 타개하면서 양상과 유형의 변천과 역사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를 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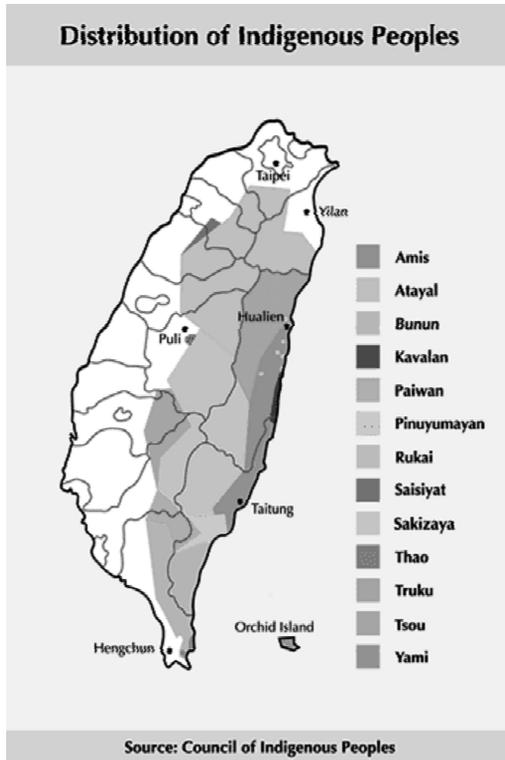
2. 臺灣 布農族·濟州島·宮古島의 神話와 敍事詩 구체적 점검

이 절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입각해서 비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신화와 서사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특징과 개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비교 연구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특징적인 자료를 말하면서 이것의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특징을 논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선택과 의의를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2.1. 臺灣 布農族 神話

이 지역의 신화는 소수민족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 개황을 기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에서는 개략적 사실만을 언급하고 신화의 구체적 선정과 의의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⁴⁾

4) 김현선, 濟州島 <천지왕본풀이>와 臺灣 布農族 <射日神話>의 比較 研究-射日神話素를 중심으로-, 濟州島 인문주간 신화 모임에서 발표 2008.10.11. 이 글에서 예시한 정보를 개괄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논의를 추가한다.



〈臺灣 少數民族 分布圖〉

臺灣은 여러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九族神話였다가 十三族神話로 확대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남매혼신화나 창세신화 가운데 多日神話素가 전하는 소수민족은 雅美族·鄒族·排灣族·泰雅族의 일파인 Sedeg族·Kanakamabu族(南鄒族)·Puyuma族(卑南族) 등에 의해서 전승된다.

漢族을 비롯해서 中國의 雲南省 民族群과 주변의 소수민족에서도 동일한 신화가 전승된다.⁵⁾ 가령 苗族·瑤族·侗族·布衣族·傣族·土家族·仡佬族·獨龍族·景頗族·蒙古族·彝族·赫哲族·圖瓦族·庫頁

島族 등이 이러한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臺灣의 射日神話를 먼저 보고 나머지 자료를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臺灣의 布農族은 현재 대략 40,000명 정도가 되며, 臺灣 중부 지역의 해발 최고 산악지대에 거주한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南投縣、花蓮縣、臺東縣、高雄縣 등의 6群에 걸쳐서 분포하며, 전형적인 山地人 또는 高山人의 사례로 된다. 생산은 주로 수렵과 이동 경작 등의 방식으로 하며, 동시에 이러한 생산방식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종교관념과 의례를 탄생시켰다.

布農族은 ‘射耳祭’라고 하는 일종의 狩獵的 祭儀를 진행하는데, 화살로 동물의 귀를 쏘아서 수렵과 농작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한다. 또한 小米祭라고 하는 풍요제의를 거행한다. 이 의식의 대부분 내용은 음악적으로 진행하는데, 音樂的 表現上 기원하는 노래를 『巴西布布』(pasibutbut)라고 하는 多音部合唱方式의 보편적인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家族制度는 父系氏族制度를 선택했으며, 皮衣製作技巧를 가지고 있으며, 祖靈(hanito)信仰을 가지고 있다. 布農族은 대략 2008년 현재 47,000여명이 살고 있다. 布農族의 문화적 면모는 鄒族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1) 男妹婚神話

布農族의 남매혼신화가 주요한 창세신화로 전승되는 점이 확인된다. 이 신화의 요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적 설정과 유사한 것인데 요점

5) 김선자, 《신화연구가 김선자의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2009. 이 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전승되는 신화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현지조사와 함께 논의를 진전하고 있어 풍부한 작업을 이룬 결과이다.

적으로 인류의 시원을 말하는 신화로 긴요한 전승 양상과 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매혼신화는 유형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면모가 있다. 핵심적 구성 요소는 대체로 다섯 가지이다. 최초의 인간은 뼈가 없어서 땅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탄생이 예사 다른 종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미흡한 인간에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한 것이 곤충으로 개미와 모기 등이 이러한 도움을 준 매개자이다.

최초의 남녀가 교합의 이치를 파악한 것이 한 쌍의 새가 교미하는 것으로부터이다. 이후 인류가 번식하고 근친혼을 금기하였으며, 적절한 곳을 찾아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길을 내고 큰일을 하면서 다시 모여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다. 최초의 인류가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모이다.

남매혼이 布農族에게는 창세신화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가 있다. 최초의 인간이 남매이고, 이 둘의 근친혼으로부터 인간이 번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남매혼신화의 핵심이다. 동물의 교미로부터 남녀 교합의 이치를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체이다.

이 남매혼신화가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는 항상 홍수신화와 결부되는 것이 아주 흔한 현상인데, 臺灣의 다른 소수민족에게서는 홍수신화보다 창세신화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⁶⁾ 흔히 이 남매혼신화를 홍수신

6) 남매혼신화가 홍수신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자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조현실, 동아시아 남매혼신화와 근친상간 금지의 윤리학, 《세계의 창세신화》, 동방미디어, 2001.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세계의 창세신화》, 동방미디어, 2001.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이 신화가 창세신화나 창세신화의 전단계 신화로 어떠한

화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창세신화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여 이를 창세신화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한 지역에서 홍수신화가 다른 지역에서는 창세신화로 인지되는 것은 착각의 결과가 아니다. 창세신화는 마땅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인간이 자연의 생물과 다르지 않았으며, 생물에게 도움을 받아 온전하게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자연물에게 교합의 이치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가설이다. 布農族의 남매혼신화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남매혼신화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대체적인 구성요소가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일상적이다.⁷⁾ 유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인간이 생물의 배설물에서 비롯되어 근친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생물의 도움으로 최초의 남녀가 근친혼을 하고 인류가 번식하여 사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설정이라고 하겠다.

남매혼신화를 근친혼금기를 생성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른 민족에게 창세신화의 속성이 우세하고, 홍수신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신화가 근친혼이나 근친혼금기의 신화로 작동하는 점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신화는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남매혼신화의 세계적 분포를 염두에 두게 되면 이 신화는 동아시아에서는 북부형과 남부형으로 갈라져 있다. 북부형은 중국의 본토, 한국, 일본 등에서는 민족신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근친혼으로 작동하지만, 남부형은 일련의 섬 지방에서는 이 유형의 신화와 창세신화로 작용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재론할 필요가 있다.

7) 林淑莉, 『琉球神話與臺灣原住民族神話研究-以兄妹始祖神話爲中心-』, 中國文化大學日本研究所碩士論文, 2002, 53-55면.

한다. 그 점에서 이 신화는 매우 중요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臺灣 布農族에게 전승되는 남매혼신화는 전형적인 남부형으로 인류의 시조 내력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사회적 발달과 창세신화로써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신화로 평가된다. 이 신화의 궁극적인 기능은 창세신화와 관련된다는 점이고, 이 자료가 이 사실을 전달하는데 긴요한 면모를 발휘한다.

2) 射日神話

臺灣 布農族에게 전하는 사일신화는 일종의 창세신화 가운데 다일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신화이다. 다일신화는 해가 여럿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웅이 활로 쏘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뒤에 달이 개입해서 제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이 신화의 핵심이며, 의례와 신화적 기원물이 함께 덧붙여진 것도 아주 각별한 일이다.⁸⁾ 이 신화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8) 臺灣의 少數民族에게 전승되는 다양한 사일신화의 면모는 臺灣의 일제강점기에 조사되고 보고서로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업적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울러서 이를 신화학적 의미로 파악하고자 한 작업도 있다.

佐山融吉·大西吉壽, 《生蕃傳説集》, 山田重藏書店, 臺北, 1923.

생蕃은 일본인이 高山族 또는 高砂族을 이르는 말로 대륙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원주민의 삶을 견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의 문화에 동화된 족속은 熟蕃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고유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족속은 生蕃이라고 했다. 염상섭의 <萬歲前>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臺灣의 생蕃에 대한 기록이 출현한다. 조선인과 臺灣 번족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 나온다.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臺灣의 生蕃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보슈……. 하하하.”

岡正雄, 太陽を射落す話, 『現代のエスプリ』神話, 1970.

玄容駿, 月明師兜率歌 背景説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424-448면.

- 1)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산양 가족으로 덮은 아이들이 도마뱀이 된다.
- 2) 태양에 접근하는데 오로지 asik잎만으로 태양빛을 가릴 수 있다.
- 3) 두 개의 태양 가운데 사람이 쓴 활을 맞은 태양이 달로 변한다.
- 4) 달이 인간에게 자신을 위해서 제전을 요구한다.
- 5) 달이 생식기나 배변기로 변한다.
- 6) 태양을 쏘러 가기 전에 심은 꿀나무가 돌아오니 온전히 자라서 꿀이 열렸다.

이 신화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태양의 과도한 뜨거움이 산양 가족으로 덮은 아이들을 도마뱀으로 만든다. 태양의 열기, 산양가족, 도마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 요소가 왜 연계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 우주와 인간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과도한 태양은 아식잎으로만 가릴 수 있어서 이를 가리고 두 개인 태양 가운데 하나를 쏘아서 결국 달로 만든다. 인간이 활로 태양 하나를 응징하고, 태양을 달로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환이다. 태양과 달이 인간이 사는 지구와 관련을 맺고, 그 가운데서 태양 하나의 죽음이 달의 제전 요구와 관련되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겠다. 태양이 제거되자 인간의 삶과 식물의 생장이 온전하게 되었다.

창세신화소의 주요한 구성소인 다일신화소의 소종래를 가진 이야기는 일련의 신화적 구성 속에 분리가 가능한 신화소임이 확인된다. 하나의 신화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창세신화의 전반적 면모를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화소가 신화 전체로 되어 있다.

사일신화의 대립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태양과 사람의 아이, 태양과 아식잎, 태양과 달, 태양과 사람, 달과 사람, 달의 변화와 생식기, 태

양의 제거와 생식력 등의 면모가 다양하게 얽혀 있다. 태양의 뜨거움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도마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연속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산양이 달라지는 면모를 과시한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깊이 관련되고, 인간의 아이가 산양 가족을 매개로 도마뱀으로 되는 것은 신화적 세계의 면모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양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이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에 맞서는데도 필요한 문화적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asik인이다. 이 asik은 布農族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布農族 여성들이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식물이라고 한다. 문화적 창조물이 매개가 되어서 강력한 태양 빛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이 식물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가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태양이 두 개이므로 이를 하나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 태양을 없애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대결은 매우 심각하고, 태양을 없애야 하는 징치를 해야 한다. 영웅이 아식인으로써 태양의 빛을 피해서 이를 퇴치하려고 나서는 일이 비롯된다. 이 인물은 영웅이고 영웅의 능력이 활로 대상을 없애는 군사적 권능을 보여준다. 인간의 자연 응징이 시작된다.

태양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죽음이 바로 달의 탄생과 연계된다. 달의 탄생과 태양의 죽음은 서로 맞물려 있다. 게다가 인간의 징치가 바로 자연의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진다. 달은 인간에게 제전을 요구하면서 인간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달은 항상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의 제전을 받게 되고, 인간은 달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이를 무시하게 된

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의 똥을 받았으며, 이 것이 아름다운 목걸이로 된다. 인간의 제전과 달의 보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태양의 응징 속에서 굴나무를 심었는데, 정상적으로 풍요롭게 자라나게 된다.

이 사양신화는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현재처럼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의 세계가 분리되고, 인간의 문화적 창조와 행위가 의례로 집결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신화로 판단된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특징은 창세신화적인 면모를 일부 가지고 있으며, 단일하게 신화적 우주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신화는 여러 각편이 전승되지만 신화적 내용이 명확하게 유형적으로 특징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다.⁹⁾ 유형적으로 본다면 화소적 변이가 있어서 제전을 요구하는 쪽이 태양인 경우도 있으며, 이와 달리 달인 경우도 있다. 제전의 양상이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 이 근본적 열개를 무시하는 변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는 각기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면서 병존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신화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단일한 내용의 주제를 신화적으로 구성하는 면모가 있다. 그래서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가 저마다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구전신화로 독자성을 가지면서 운용된다.

9) 林道生, 《臺灣原住民族口傳文學選集》, 花蓮縣立人文中心, 1996.
 陳千武譯述, 《臺灣原住民族的母語傳說》, 臺北, 臺原出版社, 1995.
 尹建中, 《臺灣山胞各族傳統神話故事與傳說文獻編纂研究》, 1994.
 方有水·印莉敏, 《布農》, 南投水里·玉山國家公園, 1995.
 余錦虎·歐陽玉, 《神話祭儀布農人》, 臺中, 晨星出版社, 2002.
 이상의 저작에 많은 사양신화의 각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布農族의 이야기가 망라되어 있다.

남매혼신화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달리 사일신화는 인간의 문화적 창조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로 일관하는 내용의 신화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신화적 사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단편적 신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臺灣 布農族 신화의 가능성이 큰 이유 역시 이러한 시원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가 서로 결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매혼신화를 창세신화로 보고, 창세신화를 일반적인 사양신화로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관념이다. 하나의 일관된 신화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면 전혀 요해되지 않는 것이 臺灣 布農族의 신화이고, 그러한 양상은 다른 소수민족 신화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매혼신화를 전승하고 있는 臺灣의 여러 소수민족 신화에서는 시조의 창생, 홍수로 말미암은 재창조, 이들의 복합과정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布農族 신화에서만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이와 복합형이 여러 민족에게 발견된다.¹⁰⁾ 가령 雅美族·鄒族·排灣族·泰雅族의 일파인 Sedeg族·Kanakamabu族(南鄒族)·Puyuma族(卑南族) 등의 남매혼신화에서 이러한 변형이 발견된다. 시조의 출생에서부터 보이는 미세한 변이 역시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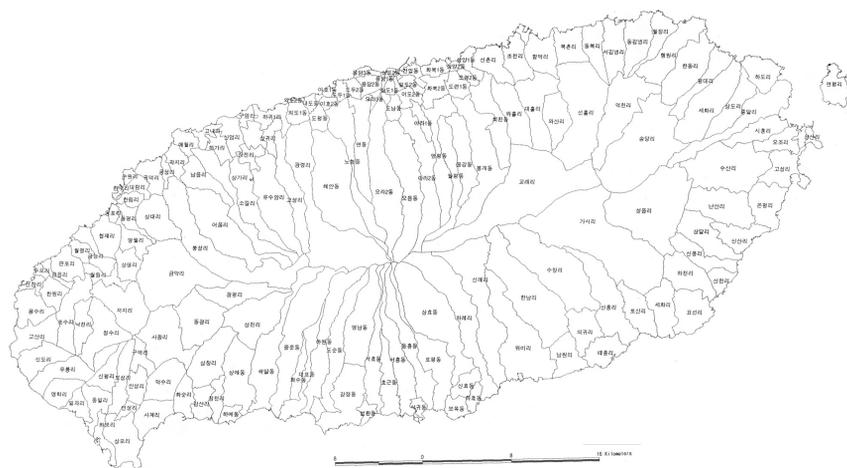
臺灣의 布農族 신화에서 토박이형과 떠돌이형으로 나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매혼신화와 창세신화의 구성소 일부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臺灣의 布農族 신화는 다른 고장의 신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준거이다.

10) 林淑莉, 『琉球神話與臺灣原住民神話研究-以兄妹始祖神話爲中心-』, 中國文化大學日本研究所碩士論文, 2002, 64면.

2.2. 濟州島의 神話와 本풀이

濟州島는 남북과 동서로 갈라지는 특별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섬이다. 이 섬에 지역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특징하게 발견된다. 濟州島의 지역적 차이가 있는 점은 특별하게 발견되는데, 이 섬에 있는 문화적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라산의 백록담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별성이 있고, 다양한 하위의 변이형이 있는 것을 기초로 종래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濟州島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착상을 기초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만 장차 신화와 본풀이 연구에서도 특징적인 면모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차별성을 문헌으로 증명할 수 없고, 구전되는 신화와 서사시에서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설문대 할망의 지역적 차이, <천지왕본풀이>의 지역적 차이 등은 단순한 차이 이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구분하는 면모이다.



〈濟州島全圖〉

濟州島의 신화와 서사시 가운데 고전적인 신화와 서사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당신본풀이가 정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삼성신화>와 일반신본풀이인 <천지왕본풀이>가 그것이다. 이 신화와 본풀이는 서로 한 자리에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논의되어야 할 적극적인 이유로 된다.

이상의 신화와 서사시의 비교가 濟州島 본풀이 이해의 요체일 수 있다. 특히 구전과 문전의 두 측면에서 두 가지 자료를 거듭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신화와 창세신화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하게 본풀이의 이면적 진실과 시대적 전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서 주목된다.

1) 三姓神話

삼성신화는 문헌으로 정착된 본풀이이다.¹¹⁾ 여기서 당신본풀이를 직접 다루지 않고, 문헌신화를 다루면서 이를 본풀이로 보는 것은 파격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삼성신화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어떻게 세 존재가 濟州島를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본풀이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당신본풀이를 담고 있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신본풀이의 서두 대목만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남다른 본풀이라고 하겠다.

11) 이에 대한 논란과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현용준, 당국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0.

조동일, 제주문학사의 연원: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15-153면.

두 글은 관점이 다르다. 당국의 유교화와 삼성신화의 관련을 정리한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서사시와 문헌자료의 상관성을 구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삼성신화가 탐라국건국서사시의 구전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 점에서 다르다.

濟州島가 우리 역사에 언급된 것은 오래 전부터인데, 실제로 濟州島의 본풀이적 구성을 보이면서 문헌에 등장한 것은 고려사의 고기부터이니 이미 그 시대 이전에 이 본풀이들이 전승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의 중심 존재만이 본풀이 주인공으로 언급되면서 이들의 존재가 본풀이로 채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삼성신화에서 주목되는 면모는 일단 주인공의 地上湧出, 갓옷 肉食, 외지 여성과 혼인, 射矢卜地 分治 등과 같은 데서 발견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실제로도 긴요하고, 의의를 가지는 당신본풀이의 주된 요소라고 하겠다. 삼성신화와 당신본풀이의 근본적 공통점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지상용출은 당신본풀이에서는 ‘솟아났다’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濟州島만의 독자적 탄생 어법인데, 천손강림, 수부탐방, 외지도래 등의 신화 문법과 다른 독자적 구성이다. 濟州島를 비롯한 남방의 신화에서 흔히 동굴에서 나오거나 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시조출생의 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주인공이 땅에서 나왔다는 점은 濟州島의 일반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겨난 남신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상황 설정도 흔하지 않다. 이 존재가 벽촌을 다니면서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고 다닌 것이 이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연 채취를 행하면서 육식을 하고 있던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남신의 생활방식이 일정한 문화적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고 야생의 자연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의 혼인은 당신본풀이의 핵심 중에 복판에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의 혼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박이와 외지의 여성이 혼인하여 단계가 진전된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요소이다. 외지의 여성이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땅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우월한 존재이다.

남성은 종래의 방식과 다른 문화적 체험과 진전을 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전의 과정은 당신본풀이의 핵심적 면모이며, 문헌신화에 이 점이 그대로 형해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삼성신화와 당신본풀이의 깊은 공질성이 이 때문에 확인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더구나 중요한 요소는 마지막의 대목에서 확인된다. 세 신인이 특정한 장소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활을 쏘아 좌정처를 정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시복지는 실제로 안덕면 덕수리의 덕수리본향당의 당신본풀이이인 광정당본풀이에서 뚜렷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긴요한 자료임을 알 수가 있다.¹²⁾

이 신화소가 삼성신화와 당신본풀이의 일반적 연계 가능성을 말하고, 당신본풀이와 삼성신화가 남북의 광정당본풀이유형과 삼성신화유형으로 갈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로 된다. 광정당본풀이는 외지의 적대자인 김통정을 물리치고 삼형제가 사시복지하여 갈라섰다면, 삼성신화에서는 그 과정이 없이 혼인하고 갈라선 것으로 되어 있다.

삼성신화는 광양당제의 유교화 과정에서 달라진 것으로 이해되고, 본디 면모는 <송당본풀이>계통의 내용에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다. 밑에 있는 자식들의 이야기인 이대담의 근간이 되는 일대담만이 명확하게 남아 있음이 증명된다. 그 자식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생애담이 없는 채로 윗대인 1대담인 곧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혼인만을

12) 진성기, 《濟州島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0, 530-531면. “이젠 “시성제가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갈르겐“ 하니. 큰성님은 대정으로 활을 쏘노랜 혼 것이 정이 대정 새엘 쏘아 정이 대정 굽을 갈르고, 셋성님은 정이레레 쏘노랜 혼 것이 정이 선양 당테레 쏘와 모관광 정이 굽을 갈르고, 말곳아신 모관테레 활을 쏘노랜 혼 것이 모관 광 대정 새엘 쏘와, 모관 대정 굽을 갈르니”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고창학의 구원으로 전승된다. 동일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반복된다.

현용준, 《濟州島무속자료사전》, 각, 2008, 658-659면.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다.

2) 천지왕본풀이

천지왕본풀이는 집단의 창조물인가 개인의 창조물인가? 천지왕본풀이의 전승은 집단적 환상의 산물인가 개인 착각의 결과인가? 천지왕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가 아우르는 간텍스트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천지왕본풀이는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전승이 문제로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답변을 마련하고자 하면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 답변의 핵심은 濟州島의 지역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본풀이마다의 독자적인 전승의 원칙에 따른 변이와 이에 의거한 특정 지역의 본풀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굿의 서두에서 이루어지는 <천지왕본풀이>의 지역적 성격이 분명하게 동서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굿법과 본풀이의 지역적 특징을 논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서 <천지왕본풀이>는 그러한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濟州島 심방에 따르면 특정한 본풀이 등은 이 본풀이의 양상과 면모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면서 달랐다고 하므로 과연 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각편의 지역적 유형의 구연이 실제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란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각편과 각편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지왕본풀이>는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다루고자 한다.

- 가) 신도업(일월광도업)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
- 나) 서두에서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치 실패하는 천지왕, 그리고 서수아미와 혼인
- 다) 일월조정의 신화소 부재 문제
- 라) ‘꽃빙잔’의 신화소와 굿 의례의 재현 문제
- 마) 맞이와 여러 제차에서 문제되는 초감제와 본풀이의 구성
- 바) 천지왕본풀이의 구연 방식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다시 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다루어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가)는 신도업과 천지왕본풀이의 상관성에 대한 논란이 된다. 서로 분간되어 있는 소중한 것인데,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나)는 수명장자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문제의 징치 대상이 되는 과정과 이유가 문제이다.

서쪽제의 본풀이에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 곧 수명이를 징치하지 못한다. 동쪽제에서는 이를 징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대세력을 물리치는 것과 물리치지 못한 것은 현격한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대자와 대결해서 평행을 달렸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가 사악한 악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과 다른 곳에 있는 지상의 일정한 세력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 점에 깊은 서쪽제 <천지왕본풀이>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총명부인과 혼인하지 않고 바로 바구왕의 딸인 서수아미와 혼인하는 것도 서쪽제의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서수

아미와 총명부인의 차이가 생기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이 두 가지 본풀이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의 일월조정신화소가 없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서쪽제의 <천지왕본풀이>에서 발견된다. 일월조정의 신화소가 구성되어 본풀이에 일관되게 이어져 있는 것은 서쪽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의 꽃빙잔이 문제이다. 이 신화소는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을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마)는 반복적 상황 속에서 각 맞이의 서두에 초감제가 있는데, 이것의 상관성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바)는 <천지왕본풀이>의 구연방식이 문제이다. 이 문제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서쪽제의 <천지왕본풀이> 문제이다.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요점은 이미 한 차례 논한 바 있다.¹³⁾

현재의 연구가 중요한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깊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 때문에 제주도의 고유한 면모에 대한 착안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 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서쪽제 <천지왕본풀이>는 주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독하기로 한다.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관계가 등장하지 않고 바구왕의 딸인 서수아미라고 하는 인물과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명장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이 악행을

1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그러나 이 저작에서 연구의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서쪽제 본풀이의 존재 여부를 처음으로 착안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하지 못하고 천지왕이 바구왕의 딸인 서수아미와 혼인하는 것으로 된다.

수명장자의 악행을 정치하는 것은 일종의 홍수신화나 창세신화의 흔적과 깊이 관련된다. 홍수신화와 창세신화에서 인간의 악행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고, 인간의 생성과 세상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서쪽제 <천지왕본풀이>는 매우 중요한 신화소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월조정신화소의 부재 역시 서쪽제 <천지왕본풀이>의 면모 가운데 하나이다. 의례껏 대별왕과 소별왕이 등장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씩 활로 없애는 화소가 구성되고, 다른 동쪽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 때문에 천지왕의 지상 방문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쪽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점은 수명장자의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일치한다.

게다가 서쪽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특별하게도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피우기 경쟁에 관한 신화소의 명칭과 의례적 행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명칭은 ‘꽃빙잔’이라고 한다. 꽃을 바꾸는 행위를 직접 명칭으로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사가집 스당클긋’일 경우에 고리동반을 바꾸어 놓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한 의례적 행위는 주도권의 경쟁에서 바뀐 것을 의례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방집의 경우에는 한층 이러한 의례적 재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고리동반의 교환이 꽃빙잔의 상징적 행위로 된다. 서쪽의 심방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를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천지왕본풀이>는 단일한 형태로 본풀이를 재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엮어놓으면서 이것의 취사선택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지역유형이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서 본풀이의 구성 요소가 다르고 의례적 재현이 달라지는 것이 이 점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삼성신화>와 <천지왕본풀이>의 상호관계는 곧 당신본풀이인 <송당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의 상관성의 문제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현된 이야기임이 명확하다. 濟州島가 성립되는 원초적인 창세신화는 <천지왕본풀이>일 개연성이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되면서 성립된 통일적인 신화이다.

이 본풀이에 신화소의 다양한 구성은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편집된 결과이다. 그 편집에 여러 세력이 동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관되게 구성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천지왕본풀이>의 다양한 전승과 지역유형의 차이를 보더라도 쉽사리 감지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濟州島의 고유한 전승에 의해서 살아있지만 복잡한 이면이 있다.

두 가지 본풀이에서 주인공의 출생 방식 역시 전혀 다른 문법을 구현하고 있다. 당신본풀이에서는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것은 濟州島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일반신본풀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특정한 남녀의 혼인에 의해서 출생했다고 하는 문법을 구사한다.

출생방식의 근본적 차별성은 단순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특정한 면모이다. <송당본풀이>에서는 솟아올랐다고 하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지상의 신이 결합하면서 탄생해 나왔다고 했으므로 근본적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 차별성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임을 감지하게 한다.

이에 전주어서 <송당본풀이>와 같은 당신본풀이는 <천지왕본풀

이>와 같은 통일된 본풀이가 등장하기 이전에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이다. 남녀간의 혼인이 핵심적인 화소이고, 濟州島 마을 사람들의 성립을 보여주는 본풀이이기 때문이다. 외지의 여성과 토박이 남성이 혼인하는 기본적 문법은 다른 당신본풀이에서도 흔한 설정이다.

둘의 혼인은 문화적 단계의 저열함과 우열함이 가로놓여 있어서 더욱 주목되는데 육식과 미식을 매개로 문화적 평등화가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남성이 문화적으로 권위적으로 우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남성이 내려와서 지상의 권능을 실현하려고 하는 점도 차이이다.

당신본풀이의 주된 내용이 남녀갈등과 남녀혼인이 주된 것을 본다면, 이 점에서 두 가지 본풀이는 구조적으로 단계적 차별성은 물론하고 역사적인 선후관계를 각기 달리하고 있는지 점이 확인된다. 당신본풀이가 보다 濟州島의 본질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 일반신본풀이는 나중에 濟州島의 특정 세력과 결합되어 일반화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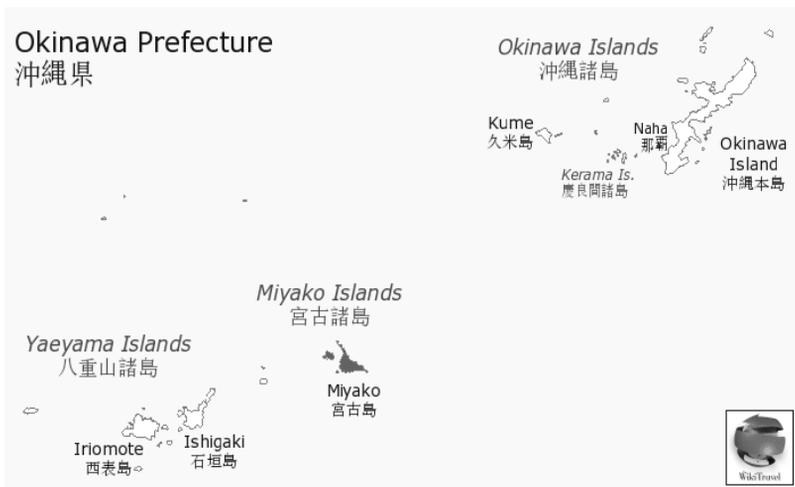
본풀이의 내용을 구성하는 점에서도 근본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당신본풀이는 삽화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확대된 본풀이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장형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에 견주어서 일반신본풀이는 내용의 전개는 장형서사이며, 특정한 내용의 일관된 구성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자못 의문스러운 면모가 있다.

게다가 본풀이가 濟州島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룩된 것과 濟州島와 육지부의 본풀이가 공유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절감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본풀이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주도 세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본풀이의 차별성은 매우 주목되는 면모이다. 濟州島의 본풀이가 서로 다른 원천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로써 알 수가 있다.

2.3. 宮古島의 創世神話, 두 가지

宮古島는 신화와 본풀이의 본고장이다. 궁고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섬이 있는데, 이제 행정구역의 온전한 개편에 따라서 宮古島시로 2005년에 달라지게 되었다. 본디 宮古島는 宮古島, 池間島, 大神島, 來間島, 伊良部島, 下地島 등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작은 섬들에 다양한 신화와 본풀이가 전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통하게 되었다.



〈八重山諸島・宮古諸島・沖縄本島〉



〈宮古島市全圖〉

1) 창세신화 1 : 〈宮古島の 시작(宮古島の始まり)〉

宮古島の 섬이 작지만 이 열도에 전승되는 다양한 신화가 있다. 비교적 宮古島の 고유한 신화로 판단되는 신화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목이 <宮古島の 시작(宮古島の始まり)>라고 되어 있다. 이 신화는 沖繩縣 宮古郡 上野村 新里에 전승되는 것으로 비교적 원초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신화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신화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 宮古島에는 아무 것도 없이 평평했다.
- 2) 天神이 下界에 섬을 만드느라고 자신의 딸을 내려 보냈다.
- 3) 딸은 천신이 내린 끈을 타고 내려와서 보니 섬에 온통 바위뿐이었다.
- 4) 딸은 천신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계에는 바위뿐이어서 섬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 5) 천신이 다시 흙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면서 다시 딸을 내려 보냈다.

- 6) 밤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내렸는데 이튿날 보니 하늘에서 赤土가 내려와 있었다.
- 7) 딸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붉은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물으니 하늘에서 다시 黑土인 검은 흙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면서 딸을 돌려보냈다.
- 8) 그 날 밤에 천둥과 번개, 비 등이 몰아치면서 이튿날에 보니 검은 흙이 내려와서 있었다.
- 9) 경작을 하게 되면 흑토, 적토, 그 아래에 바위가 있으므로 경작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씨앗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온갖 씨앗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 10) 그러나 하늘에서 키인(キイソ)만은 주지 않자 그것을 딸이 옷소매에 감추어서 가지고 와서 이를 심게 되었는데, 그것을 달밤에 심으면 자라지 않고 어두운 밤에만 심어야만 자라게 되었다.
- 11) 하늘에서 딸에게 처음 만나는 것이 깨든 인간이든 무엇이든 그것과 혼인하라고 하자, 宮古島에는 小인이 있어서 이와 혼인하였다.
- 12) 宮古島의 섬 만들기가 이렇게 비롯되었다.¹⁴⁾

이 신화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섬이 이룩되는 과정이 있다. 천신의 딸이 섬으로 오게 되는데, 그 딸은 모든 창조를 지상의 섬에 구현하되 일일이 하늘과 연계해서 이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위, 적토, 흑토 등의 단계로 섬이 이루어지는 섬 창조가 있다. 섬이 있어야 인간의 세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바위 위에 적토와 흑토가 필요했다. 宮古島 섬이 바위, 적토, 흑토 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섬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 하늘로 주

14) 福田晃, 宮古島の始まり, 沖縄縣宮古郡上野村新里, 『上野村の民話』,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어지고 이 결과 농경에 적합한 토질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였다.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바람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경과에 의해서 위에서 말한 바위와 흙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

땅이 성립된 뒤에 곡종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이 곡종 역시 하늘에서부터 주어졌다고 했다. 모든 곡종을 받았지만 천신의 딸은 키인(キイ)만은 훔쳐왔으며, 키인을 밤에 재배하고 그것을 달밤에 재배할 수 없는 과정을 보여준다. 곡식을 마련하고 과일을 재배해야 인간의 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인간의 세상에서 번식 문제가 긴요한 신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혼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늘 신의 딸과 소인이 혼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화소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여성과 개가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전통적인 신화소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¹⁵⁾

세 가지 신화소가 합쳐져 있다. 섬 창조, 곡종의 마련, 혼인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창세신화소는 각기 의의를 두고 있어서 宮古島를 비롯한 각각의 지역에서 널리 존재하는 것이다. 섬의 창조는 섬이 잇달아 있는 곳에서 흔한 설정이다. 섬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롯하였으며 그것이 창조 과정에서 홍수나 파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을 흔하게 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섬으로 된 지역이므로 여러 섬이 파도나 파랑을 막아내면서 시작되었음을 항상 공통적 전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다. 그것은 문헌으로 전하는 琉球의 문헌신화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된다.¹⁶⁾ 이뿐만 아니라,

15) 福田晃, 犬と女, 『沖繩民俗』 十八號, 沖繩縣 宮古郡 邊城町 砂川,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112면.

유구열도 전체에서 섬의 성립과정에서 섬 창도에 대한 내력이 모두 이와 같은 유형적 일치가 있으며, 이것이 남매혼신화소와 결부되기도 하고, 홍수신화와 연계되기도 한다.

곡종의 창조에서 농경의 기원으로 이동하는 신화소 역시 다른 섬의 창조신화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업에서 필요한 것은 곡식의 확보이다. 섬을 이루는 신화에서 항상 곡종이 문제로 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곡식은 다른 곳에서 반드시 가져오게 되고, 곡식을 가져오는 존재는 바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 존재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여성은 섬의 창세신화에서 항상 곡종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흠쳐서 가지고 오는 신화소가 있다. 이 신화소는 특정 과일의 곡종과 관련되는데 이 곡종의 신화소는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살펴진다. 암흑의 밤에만 은밀하게 번성하게 되는데, 신의 사술이 존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여신은 특정한 신화소를 움직이는 인상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섬의 창조에서 혼인의 문제이다. 여성과 남성이 혼인하는데 복잡한 유형적 변이가 확인되는데, 흔히 우월한 여성과 저열한 남성, 여성과 동물(개, 원숭이), 오라버니와 누이 등의 관계 대립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다. 남녀의 질적 차별성이 강조되고, 혈족적 일치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론적 기반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비단 이 신화소는 宮古島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宮古島의 창세신화는 단일하지 않다. 그러나 신화적 상

16) 《球陽》卷一, “國初蓋我國開闢之初 海浪氾濫 不足居處 時有一男一女 生于大荒際 男名 志仁禮久 女名阿摩彌姑 運土名 植樹木 用防海浪 而嶽森始矣 嶽森既成 人物繁艱 然當時之俗 穴居野處 與物相友 無有价傷之心 歷年既久 人民機智 物始爲敵 於時復有一人 自出 分類 定民居者 叫稱天帝子”

황 설정은 매우 원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갖가지 신화소가 복합되면서 다양한 양상과 신화소의 연계가 불가피하게 나열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신화소의 단계적 전개가 이질적인 요소가 일련의 과정에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질적 유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 창세신화 2 : 미륵불과 석가불 『ミルクボトケ(彌勒佛)とサクボトケ(釋迦佛)』

이 신화는 히라라에 전승되는 신화이다. 미륵과 석가의 창조에 의해서 문화적 창조와 불의 창조가 이루어진 경과를 소개하는 면모가 이미 찬찬히 이루어졌지만 이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재론하기로 한다.¹⁷⁾ 이 결과에 입각해서 이 신화를 색다르게 재해석하기로 한다. 이 신화를 소개한 인물은 大林太郎이다. 이 신화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 1) 치카사야(ツカサヤ, 漲水)신은 일곱 형제이며, 미륵과도 형제신이다.
- 2) 미륵은 宮古島 섬에 인간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唐나라에서 온 신인데 모습이 추하고, 반면에 석가는 아름다웠다.
- 3) 미륵은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인간을 비롯한 동물을 내려 보내고, 석가는 지상에서 받는 구실을 했다.
- 4) 미륵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내려 보냈는데, 꼬리가 길어서 성행위를 할 수 없어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 꼬리를 끊고 지상에 내려 보내 인간은 성 결합을 하고 인류를 번식시킬 수 있었다.
- 5) 미륵은 노하라산의 구바나무(クバの木)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

17)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함흥, 濟州島, 오끼나와, 나가사키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241-288면.

김현선, 韓國과 琉球의 創世神話 比較 研究 -彌勒과 釋迦의 對決 神話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18) 大林太郎, 『ミルクボトケ(彌勒佛)とサクボトケ(釋迦佛)』, 宮古島 伊良部島 平良砂川マツ様提供, 岡本通譯, 《伊波普猷全集》 月報 5, 平凡社, 1975.

렸는데, 인간 역시 이 곳을 통해서 왔으며, 이 구바나무가 말라죽자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와 인간을 잡아먹었다.

- 6) 미륵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물도 내려 보냈다.
- 7) 말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들판으로 내려 보내고, 소는 인간이 만든 것을 먹는다고 해서 대나무를 깎은 곳에 내려 보내 발굽이 갈라지고 빨리 달릴 수 없게 되었다.
- 8) 미륵과 석가는 치카사야에게 상의해서 인간과 동물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고, 미륵은 다시 한번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곡식의 씨앗을 가져와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했다.
- 9) 미륵은 당에 가서 각종 과일의 씨앗과 꽃의 씨앗을 가져와서 인간이 길을 가다가 과일을 먹고 배부르게 했다.
- 10) 미륵과 석가는 宮古島라는 섬의 이름을 명명한다.
- 11) 석가가 宮古島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자, 미륵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치카사야에게 상의한다.
- 12) 미륵은 하는 수없이 석가와 함께 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 13) 미륵의 꽃은 피고 석가의 꽃은 피지 않았는데, 미륵이 조는 버릇이 있으므로 석가가 미륵의 꽃을 자신의 꽃과 바꿔치기 했다.
- 14) 미륵은 唐나라로 가고, 唐나라에 아무 것도 없어서 宮古島의 과일과 꽃을 모두 가지고 갔다. 그래서 宮古島에는 몇 가지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신화는 구전되는 것으로 宮古島의 히라라(平良)에 전승 되는 것으로 미륵과 석가가 등장하는 신화의 내용으로는 거의 채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자료로 판단된다. 신화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므로 이를 간추려서 정리해서 다루기로 한다. 이 신화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신화소로 정리된다.

- 1) 人間의 창조와 번식

- 2) 動物의 창조·植物의 창조
- 3) 宮古島 섬의 이름 명명
- 4) 彌勒과 釋迦의 꽃 피우기 시합
- 5) 唐나라와 宮古島 섬의 문화적 차별성

이 신화의 내용을 宮古島의 창세신화 1과 구조적으로 비교하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일단 주체의 변화가 생겼다. 하늘의 천신 딸이 주체이던 것이 이제 세 신으로 바뀌었다. 천제의 딸이 아니라 치카사야, 미륵, 석가 등이 이들이다. 이들을 모두 남성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본적 변화가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의 창조가 하늘에서 당나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던 전통적 장소가 당나라로 되어 있으므로 하늘이 아닌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공간적 변화가 눈에 띈다. 공간적 변이 속에 문화적 창조의 근거지가 달라지고 있으며, 하늘에서 당나라로 바뀌는 것은 이 점을 암시한다.

치카사야신은 아래자형의 뱀신에 해당한다.¹⁹⁾ 神社나 山岳의 이름이기도 한데, 모두 뱀신의 아래자형의 시조신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에 견주어서 치카사야와 미륵은 고유한 신격인 반면에, 석가는 고유한 신격이 아니고 외래의 신격이고 선과 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화 주인공이기도 하다.

미륵신은 고유한 신격이고, 치카사야신과 동질적인 형제신이라고 했으므로 이들 신의 성격이 일치되는 면모를 견지한다. 토박이 신격이 바

19) 山下欣一外, 《日本傳説大系》 卷十五, みづう書房, 1989. 이 책에 여러 가지 각 편이 실려 있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소개한다. 두 자료 모두 平良市에 전하는 자료인데, 이제 平良市는 2005년 10월에 폐지되고, 현재는 宮古島시가 되었다.

뀌어서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석가와 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석가는 분명하게 외래의 신격으로 되어 있다. 토박이 신과 외래의 신이 문화적 주도권을 경쟁하게 된다.

미륵과 석가는 처음에 협조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섬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자로 둔갑한다. 인간, 동물, 식물 등을 창조할 때에 미륵이 내려주고, 석가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미륵이 진정한 창조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석가는 이 수동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를 부정하고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미륵과 석가의 경쟁은 고유한 신화소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에 퍼져 있는 신화소와 같은 것임을 절감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명권에서 산출된 신화소는 아니고 특정신앙과 함께 널리 퍼져 있는 신화소이다. 특히 특정 주체의 평행창조신화소가 달라진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미륵의 패배와 석가의 승리는 이 신화소의 현재적 면모와 연계되는 점에서 동질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승과 저승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富古島와 당나라로 되어 있다.

富古島의 창세신화 1과 창세신화 2는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전혀 다른 신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질적인 창세신화가 두 편이 각기 전승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富古島의 창세신화에서 생기는 층위의 차별성은 매우 주목되는 면모이다.

창세신화 1은 富古島의 고유한 신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富古島의 섬을 만들고, 섬에 필요한 곡종과 농경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혼인으로 귀결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신화는 이웃하고 있는 여러 섬이나 富古島 주위의 섬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표현을 달라도 직접적인 공질성이 있으므로 주목된다.

여성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도 이 신화의 특징이다. 여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섬을 창조하고 여성이 자신보다 저열한 존재와 혼인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단순한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신화의 단계에 여성신이 먼저 출현하여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단계이다. 여성신이 문화적으로 나중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장한다.

창세신화 2는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에 출현한다. 고유한 신격과 외지에서 유래했지만 사실은 동질성을 혈연관계로 구현하면서 형제로 친연성을 강조하고 불교의 신격을 표방하는 것이 이 신화의 주된 면모이다. 여성신이 아니고 남성신이 주된 신격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 신화가 본디의 신화와 다른 창세신화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고유한 신과 외래의 신이 서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미륵과 석가의 꽃 피우기 신화소는 아주 특별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신화소는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모두 발견되고, 중국 남부, 우리나라, 아미미제도 등에서도 발견되는 신화소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신화는 매우 주목되는 면모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창세신화 1과 창세신화 2의 공존은 宮古島시의 신화가 매우 이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화와 서사시가 각기 전통적인 지속과 변화 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유한 신화와 역사적 변천을 겪으면서 이룩된 신화가 한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은 다른 민족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3. 臺灣布農族·濟州島·宮古島の 神話와 敍事詩 비교

臺灣布農族·濟州島·宮古島の 신화와 서사시를 자체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다른 것의 공통적 전개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같은 신화소나 내용에 천착했던 업적을 유념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의 공통적 전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새삼스러이 인식할 때가 되었다.

자료의 특징을 들어서 이를 논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비교가 필요하지만 일단 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간하면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공통적 사고구조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정확한 방법이 되리라고 간파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료의 특성으로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일단 臺灣布農族 신화는 구전으로 전승되는데 이 자료들은 어떠한 통일성을 띠고 있지 못한 신화 자료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남매혼신화와 사일신화가 각기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일관된 기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臺灣布農族신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남매혼신화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 부족에게는 일종의 창세신화와 인류기원신화를 겸하고 있다. 아울러서 사일신화 역시 제의기원신화이면서 동시에 곡물기원신화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단편적인 신화소가 구전되고 있으며 각편이 많고 변이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 점을 주목해서 보면 신화소의 장형화도 피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화적 논리체계 구성도 박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점은

臺灣布農族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른 소수민족신화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신화소가 서로 연계되어 일관된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본다.

게다가 臺灣布農族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도 다른 대륙과의 신화적 융합이나 충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령 외지와외의 인물 결합도 발견되지 않으며, 혼인의 관계도 없는 것이 특별한 현상일 수 있다. 그것은 신화에서 혼하게 설정하는 토박이문화와 떠돌이문화의 결합과 관련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 신화에서 이민족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濟州島에서 검토된 문헌신화와 구전본풀이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해 준다. 일단 신화가 일정하게 단형서사와 장형서사로 갈라졌지만, 일정하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문헌신화의 기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 바 <송당본풀이>계통의 신화는 濟州島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다양한 당신본풀이 유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당신본풀이의 구성과 계통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 본풀이는 濟州島의 다소 시원적 상황을 말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가령 송당계 당신본풀이, 한라산계 당신본풀이, 예래계 당신본풀이, 금악계 당신본풀이 등의 양상이 이를 말해준다.²⁰⁾ 그 가운데 삼성신화는 송당계

20)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7-75면. 이 연구에서 네 가지 당신본풀이의 전승 양상과 구성 내용,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서 기초적 양상에 대한 논의를 간헐적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당신본풀이의 양상이 분간되었다. 그 경과에 해당하는 논문과 저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용준, 濟州島 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문무병, 《濟州島 당신양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濟州島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당신본풀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신본풀이는 단일한 주제로 단형서사를 기저로 하고 있는 본풀이이며, 삼성신화 역시 이러한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이 네 가지 당신본풀이 양상은 濟州島의 통일적인 당신본풀이 부재를 말하는 것이고, 濟州島의 주도적인 세력이 각기 병립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한 뿌리에서 나와서 갈라졌다고 하는 <송당당신본풀이>의 주장과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주목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다르게 일반신본풀이로 된 <천지왕본풀이>는 그간 이러한 濟州島의 특성과 견주어서 해석되거나 조명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겠다. 일단 이 본풀이는 당신본풀이와 다르게 장형서사시이고, 게다가 여러 신화소들이 단일한 본풀이의 논리로 흡수되어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臺灣布農族의 신화처럼 단일한 단편적 의례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단한 신화적 내용이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천지왕본풀이>가 지역에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구성되는 점을 본다면 이는 정격적인 본풀이의 흡수양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서쪽제의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에 관련한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이 본풀이의 양상을 통해서 다양한 본풀이의 이면적 형성 과정과 흡수과정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다. 구성이 달라지는 양상은 조명받지 못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당신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는 전혀 다른 구성을

김현선, 濟州島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43-287면.

하고 있다. 본풀이의 시조가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며, 게다가 외지의 여성과 남성이 결연하는 것과 다르게, 천상의 남성과 지상의 여성이 결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구성이다. 그러나 시조가 복수로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변형이다.

외지의 신화소라고 짐작되는 형제의 주도권경쟁과 평행창조의 신화소가 꽃 피우기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요소에 대한 근본적 면모를 받아들여서 창세신화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일월조정의 사일신화소가 <천지왕본풀이>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이는 매우 의문스러운 면모가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다. 이 본풀이의 전래는 당신본풀이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과 다르게 특정 세력의 濟州島 정착과 지배권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宮古島の 창세신화는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비교적 선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유한 창세신화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여성이 섬을 차례대로 만들어가는 신화소가 우선하는데, 이 고유한 신화소는 양상에 따라서 홍수신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섬을 마련하고 섬의 홍수로 인한 침수를 막아내는 것으로 부터 신화가 시작한다. 이 신화소가 남매혼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신화에서는 남매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우월한 여성과 저열한 남성이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별성이 생겼다. 신의 딸인 여성과 작은 난쟁이이거나 동물인 개의 혼인 결과가 바로 宮古島 섬의 인류시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신화소의 반영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宮古島の 창세신화 2에서는 고유한 신화소와 외래의 신화소가 복합되어 동일한 열개의 신화를 전혀 다른 구조로 변형시켜서 창조하고 있

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가령 고유한 신격인 치카사야와 외래의 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륵과 석가를 결합해서 새로운 구성으로 만들고, 치카사야와 미륵을 한 형제라고 함으로써 외지에서 유래된 신격의 고유화를 꾀했다. 이에 견주어서 석가는 외지의 신격임을 강조하고 있다. 치카사야 신격은 아래자 신격이고 무조신화의 시조를 출생하기도 한다. 우타키 신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화인 것을 볼 수가 있다.²¹⁾ 漲水御嶽(びやるみずうたき)은 富古島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다.

富古島의 창세신화와 시조신화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유한 신화와 외지의 신화가 서로 별다른 간극이 없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도 창세신화의 구성 요소가 격심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며, 미륵과 석가의 꽃 피우기에 의한 평행창조에 대한 요소는 일반적인 것과 달리 외지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해서 본다면 신화 자체와 본풀이의 양상은 제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깊은 공통적 전개를 보이고 있음이 추정된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화와 본풀이가 특정 신화소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2] 신화와 본풀이가 일정한 체계로 특정 주체가 나타나는 경우
- 3] 신화와 본풀이에 외래적 요소를 복합하여 나타나는 경우

이상의 세 가지 경우는 신화와 서사시가 해당하는 경우를 보이는 것

21) 가령 이러한 신화의 내용이 우타키(うたき)유래담(御嶽由來談)으로 문헌신화에 전승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한 문헌신화가 《御嶽由來記》에 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지만, 신화와 서사시의 역사적 단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1], 2], 3] 등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이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3]은 후대적 양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1]은 臺灣의 布農族 신화에서 발견된다. 각각의 신화는 일관된 신화소를 구성하지 못한다. 각각의 신화는 각각의 신화소로 되어 있으며, 남매혼신화의 시조출생과 관련되거나, 사일신화소가 일정한 의례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준다. 臺灣 布農族 신화는 이 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통일된 서사시와 신화 부재가 이 현상을 말해주며, 실제로 다른 민족에게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臺灣의 신화에서는 2]와 3]은 존재하지 않는다.

2]는 濟州島와 宮古島에 거의 흡사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신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령 특정한 본풀이와 신화의 차별성을 두고 일반적으로 구전되는 신화를 신화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²²⁾ 가령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연구사에서 방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구전신화에 의미가 있으며, 이 신화가 더욱 본질적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의 경우는 濟州島와 宮古島에 정확하게 나타난다. 두 가지 양상이

22) 정진희, 《濟州島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3면.

전승집단	濟州島	미야코지마(宮古島)
호족신화	高氏族譜類의 <乙那神話> <양이목사본>	우타키 靈驗談의 토요미야(豊見親)神話 및 우타키(うたき) 유래담의 <島始神託> 나카소네 토요미야(仲宗根豊見親)의 이야기
집안신화	조상신본풀이	무투 및 부나카 등의 신화
마을신화	당신본풀이	'후사', '다-비' 등의 의례가요와 제의 주변신화
광포	일반신본풀이	설화 형태의 신화

일치하며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양상 역시 유사하다. 濟州島 고유의 신화가 본풀이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외지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본풀이의 내용이 구연된다. 宮古島의 신화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본풀이가 아닌 신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본풀이의 양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1]은 통일된 통치 질서의 경험이 없는 쪽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양상은 臺灣의 소수민족에서 경험하는 특징이다. 그에 견주어서 2]와 3]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그러한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濟州島와 宮古島에 시원적인 신화는 구성되지 않고 구전신화와 본풀이가 별도로 구성되는 점에서 긴요한 면모를 보인다. 濟州島는 본풀이의 양상이 각별하다고 할 수가 있으며, 宮古島는 본풀이와 같은 구전서사가 예외적이고 구전신화가 더욱 풍부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濟州島와 전혀 다른 면모를 구현한다.

濟州島에 2]와 3]이 있는 것은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2]와 3]은 서로 배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정되지만, 2]가 고유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소 원초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외지의 여성과 토착적인 남성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점이 두루 확인된다.

그에 견주어서 3]은 서로 이질적 상황 속에서 외지에서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는 요소를 차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목해야 한다. 濟州島의 신화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유한 요소라고 하기 어렵고, 고구려신화의 열개와 유사하고, 특히 고구려계통 신화의 남전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宮古島에서 2)와 3)은 宮古島 고유의 신화소와 함께 이를 개작하는 신화소임에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가 여성의 등장과 함께 섬의 농경기원과 관련되고, 3)의 신화소에는 여성이 거세되고 남성으로 변환되었으며, 전혀 다른 신화가 전개되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구성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주체에 있어서 전환이 생긴 점은 각별하나, 일관되게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濟州島에서는 여성의 고유한 창조가 거인여성신화인 설문대할망과 같은 사례에서 남아 있다.²³⁾ 이에 견주어서 남성은 육식을 하는 존재로 남아 있으며, 외지의 여성이 긴요한 구실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宮古島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 긴요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여성과 남성은 전혀 다른 작용을 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성이 문화적으로 우세한 것은 濟州島와 일치하지만 남성은 저열한 위치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은 개를 위시한 짐승이거나 사람이라고 해도 불완전한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濟州島와 宮古島에서는 섬에 들어오는 문화적 존재와 토착적 존재의 갈등이 매우 중요한 화소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둘의 결합에 의해서 이야기가 구성되지만 이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으며, 각양각색의 차별성을 형성한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여성이 남성으로 달라지는 것은 濟州島와 宮古島의 사례에서 서로 달라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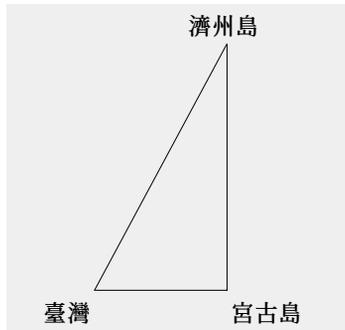
23)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설문대할망'과 '삼신인'을 중심으로,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이 두 가지 신화소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했으므로 주목된다.

외지에서 오는 여성이 남성으로 교체되고 문화적 전달자가 바뀌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면모이다. 그 양상이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 宮古島 창세신화 2에서 모두 확인된다. 그러한 점에서 濟州島와 宮古島는 서로 닮아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 전환은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

세 군데 세 섬의 신화와 서사시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 구체적 자료들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서 여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를 통해서 진정한 비교를 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 지역의 편차와 분포를 상기하면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근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

臺灣은 座標로 본다면 北緯23度58分21.3秒이고, 東經120度58分45.7秒이다. 濟州島와 宮古島는 경도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서 북단과 남단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濟州島는 좌표로 본다면 北緯33度22分, 東經126度32分이다. 이에 견주어서 宮古島는 沖繩本島에서 南西쪽으로 대략 300km 떨어져 있으면서 北緯24度, 東經125度에 위치하고 있다. 서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경도가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위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그 점을 세부적으로 무시하고 이들을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추상화해서 비교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분명하지만 직각 삼각형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의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비교를 위해서 이들의 근간이 되는 점을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화와 서사시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 지역의 인문지리적 개념도를 제시하고 이들의 신화와 서사시를 비교하기로 한다.



〈臺灣·濟州島·宮古島の 관계 개념도〉

인문지리적 분포로 서로 상이한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하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포에서 신화와 서사시의 구성이나 신화소의 내용이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특징을 연역할 수 있다. 개별적 사례를 넘어서서 이 사례의 시대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의한 주요한 면모를 추정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臺灣은 시원적 신화를 구성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소산이며, 신화의 온전한 체계나 논리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신화인 남매혼신화와 사일신화는 기능적으로 일정한 의례와 관련되고, 창세신화와 시조신화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더구나 신화의 내용에 있어서 외지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섬의 문화적 충돌이나 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외지의 인물과 합쳐지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이 사실을 말한다. 통일된 정치체제나 단일체 구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강조 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한 면모에서 濟州島와 宮古島는 다른 시대를 겪었다.

濟州島와 宮古島는 각각 특정 시대의 신화와 서사시를 가지고 있다. 濟州島에서는 시원적 신화와 본풀이는 매우 희석되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다양한 당신본풀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신화적 주체에 대한 다양한 본풀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구전신화의 다양성은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이에 견주어서 宮古島에서는 특정 주체에 대한 신화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특정한 집단의 본풀이도 가지고 있으므로 濟州島의 사정과 다른 양상과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풀이의 형태와 구전신화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시대를 겪었음이 확인된다. 그 점에서 특정 집단의 신화로 호족신화를 내세우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宮古島의 본풀이인 니리와 아구 등은 특정 집단이나 주체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견주어서 구전신화는 이 집단과 다른 다양한 신화적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본풀이와 구전신화는 전혀 다른 양상을 구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총괄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濟州島는 본풀이 자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지의 세력에 대한 문화적 충돌이 확인된다.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는 서로 다른 것이고, 당신본풀이에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충돌이 들어 있으므로 이것이 濟州島의 역사 전반에 대한 면면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달리 일반신본풀이는 본토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일어난 변형일 수 있겠다. 濟州島에서 발현된 본풀이와 신화의 복합에서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양상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한 문화적 충돌을 함께 겪은 宮古島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본풀이와 신화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濟州島가 본

풀이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조상신본풀이 등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濟州島와 宮古島는 서로 이례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濟州島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을 단위의 공동체로 대처하는 슬기를 발휘하면서 곳을 중심으로 일관된 면모를 구성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지의 인물과 내지의 인물이 겪는 인물의 혼인과 문화적 복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독자적인 변형을 일으키려고 힘썼다.

宮古島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표면과 이면을 이루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창조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점에서 宮古島는 좁게 구성된 곳이고, 다양한 섬이 연이어진 것이지만 다양한 형편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섬 사이의 다양성은 매우 이례적 면모를 구성하게 된다. 宮古島의 특징적인 양상은 그러한 점에서 濟州島와도 다르고 특정 주체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통일된 정치집단의 영향은 매우 특정하는데, 고려시대 이래로 濟州島가 복속되면서 외지의 집단과 내지의 특정 세력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추하는 당신본풀이에서는 집단끼리의 충돌과 복합을 말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이 점에서 당신본풀이는 구비역사의 진실성을 반영한다.

宮古島는 지배집단의 대소편차가 있어서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유구 왕조의 본거지인 충승본도와 지속적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지배세력과 관련되는 양상은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섬 사이의 거리가 멀고 문화적 속성을 단일화할 수 없었으므로 이 점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 세력만을 내세우는 문화적 획일화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구비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宮古島는 다양성을 구비한 신화적 보고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라고 하겠다.

臺灣의 소수민족은 대륙이나 주변의 여러 이민족과 문화적 충격이나 교유의 흔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臺灣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의 시기로 구분된다.²⁴⁾ 17세기 이전에 존재하는 두 것으로 대두왕국의 시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기 등이 있었으며, 정씨 왕국의 시대, 청조 시대, 일제시대, 중화민국 중국 대륙 통치 시대, 국부천대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대두왕국의 시기이다. 대두왕국(大肚王國)은 파플라족(巴布拉族)과 묘무송족(貓霧揀族), 과족해족(巴則海族), 홍아족(洪雅族)의 일부가 이 16세기 중엽에 세운 과족군집왕국(跨族群準王國)이고 모든 부락의 대표로써 대두번왕(大肚番王)을 선출했다. 이 부족 연맹의 국가는 청나라 옹정제까지 이어가다 사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화되지 못하거나 집결되지 못한 곳은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진 문화의 온전함을 가지고 신화와 서사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된 신화와 서사시가 없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세 곳의 세 섬에 전승되는 신화와 서사시를 정리하면 이질적인 면모가 많아서 과연 함께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단순하게 신화의 내용적 공통점에 의거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유형적 비교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비교가 상호 이해에 자극과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臺灣은 宮古島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외지의 문화적 충격이 臺灣의 현존 소수민족에게는 적어서인지 시

24) http://ko.wikipedia.org/wiki/%ED%83%80%EC%9D%B4%EC%99%84%EC%9D%98_%EC%97%AD%EC%82%AC

원적 면모를 신화가 있는 점에 견주어서 宮古島는 각양각색의 신화를 구비하고 외지와외의 연계성을 잃지 않았다. 宮古島의 그러한 면모는 濟州島와 매우 근접하고 있지만, 열도의 특징이 없는 濟州島는 특정한 집단을 주체로 해서 본풀이 위주의 전승으로 재편된 것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되었다.

臺灣 소수민족에게는 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宮古島와 濟州島에는 본풀이가 있다. 宮古島의 본풀이는 특정한 신앙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면모를 담고 있지만, 宮古島의 본풀이는 구전신화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특정신앙이나 집단의 역사와 관련된다.

그러나 濟州島에서는 본풀이가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본풀이의 지역적 양상과 유형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유형의 차이가 암시하는 것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미흡해서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본풀이가 성행하여서, 구전신화의 고유한 면모가 거세되는 비운을 겪었다. 구전신화의 대부분은 육지부에서 들어온 것이 많고, 대다수 일반신본풀이로 재편된 것도 특징이다.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나 원리를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 비교의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 비교를 통해서 주류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변부의 신화적 다양성과 함께 기능의 생성 요인이 있으며, 그같은 잔영이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마무리

臺灣布農族·濟州島·宮古島の 신화와 서사시는 비교신화학의 새로

은 연구 과제로 될 전망이다. 비교신화학의 주요 과제가 특정한 정치권력의 주도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신화와 서사시를 자랑하는 신화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간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잘못이다. 이제 비교신화학의 진정한 방향은 문화주권을 복원하고 지구상에서 소외받는 제4세계 소수민족을 주목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²⁵⁾

그러나 이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소수민족 가운데 통일된 정치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4세계에 이어서 소외받는 존재들을 재조명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가 제5세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5세계는 바로 소수민족이지만 소수민족보다 더한 소수민족을 말한다. 제5세계의 소수민족 가운데 臺灣布農族·濟州島·宮古島の 신화와 서사시는 적절한 본보기이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면에 잠재된 신화와 본풀이의 연구에서 생기는 진정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품게 되었다. 크게 정치적 주권의 승패에서 밀려난 쪽이 신화와 서사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기현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수민족에게 신화와 서사시는 자신의 독특한 사고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억의 역사를 담는데 진정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

자신들의 기억의 역사 속에 자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던 문화적 형상을 구현하는데 자신들의 삶과 외지의 충격을 그리는 것은 필수적인 양상이다. 세 섬에서 그러한 역사적 기억의 일환으로 고유한 사고를 적절하게 드러내는데 신화와 본풀이는 거의 적절한 범례를 구현한 결과임이

25) 동아일보 국제부편, 《제4세계의 사람들》, 동아출판사, 1994.

Gordon Brotherston, *Book of the Fourth World: Reading the Native Americas through their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확인된다. 臺灣에서는 시원성이 있어서 외지의 충격이 확인되지 않지만, 濟州島와 宮古島에서는 자신의 고유성과 외지의 타자성은 매우 이례적인 충돌로 남아 있다.

濟州島는 외지와 내지의 복합이 거의 절대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면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 다양성을 구현하려고 힘썼다는 점이 자료의 실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宮古島에서는 외지와 내지의 충돌양상이 생경하게 그것 자체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거칠게 서로의 특징을 견지한 채 드러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문화주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힘겨운 기억의 역사를 구전신화와 본풀이에 드러내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연구는 출발단계임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臺灣의 소수민족이 여럿이므로 이 결론을 더욱 확장해야 마땅하고, 濟州島의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宮古島의 본풀이와 신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깊은 과제를 인지하게 되었다. 문화주권의 본보기로 신화와 본풀이를 다루어야만 지구상의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사과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과의 다원성을 제공하는 제4세계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가령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신화는 전인미답의 문화적 다양성을 입증해낼 수 있는 화급한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를 더욱 확장해서 지구상에 사라졌거나 소멸의 위기를 봉착한 소수민족의 흔적을 통해서 비교신화학의 관점에서 문화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비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화와 본풀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잠

재된 대립적 질서를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와 의의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역사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엇이 같고 다른지 그 사실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들의 유형적 특징을 무엇을 암시하는지 다른 사실의 시대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세 섬의 자료 비교는 공통점과 달리 특정한 신화의 내용이 암시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섬은 고립되어 있는 지리적 조건 속에서 독특한 문화적 창출을 하는데, 이 창조의 이면에 깊은 시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세 섬의 양상이 고립의 정도, 내지와 외지의 충돌 정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신화와 본풀이로 구현되는 점을 볼 수가 있었다. 고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외부와 단절된 곳과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전혀 다르다.

대만의 포농족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남방 지역에서 독자적인 신화를 구현하였다. 제주도는 고립의 정도가 있으나 남방지역의 문화를 일부 가지고 있었으며, 대륙문화에 일정한 침윤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체계적인 본풀이 형성을 하였으며,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소를 가지지 못했으며, 구전신화를 망실한 면이 적지 않은 곳이다. 그에 견주어서 궁고도는 고립의 면모와 함께 일정하게 유구왕국의 자극을 입고 있으며, 남방지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그 양상을 주목하고 해석을 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참고 문헌

1. 臺灣 布農族 神話

- 佐山融吉·大西吉壽, 《生蕃傳説集》, 山田重藏書店, 臺北, 1923.
尹建中, 《臺灣山胞各族傳統神話故事與傳説文獻編纂研究》, 1994.
方有水·印莉敏, 《布農》, 南投水里·玉山國家公園, 1995.
陳千武譯述, 《臺灣原住民族的母語傳説》, 臺北, 臺原出版社, 1995.
林道生, 《臺灣原住民族口傳文學選集》, 花蓮縣立人文中心, 1996.
余錦虎·歐陽玉, 《神話祭儀布農人》, 臺中, 晨星出版社, 2002.
林淑莉, 『琉球神話與臺灣原住民神話研究-以兄妹始祖神話爲中心-』, 中國文化大學日本研究所碩士論文, 2002.

2. 濟州島神話

-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민정, 필리핀 창조신화의 주요 모티프,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김선자, 《신화연구가 김선자의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2009.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_____,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함흥, 濟州島, 오키나와, 나가사키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_____, 韓國과 琉球의 創世神話 比較 研究 -彌勒과 釋迦의 對決 神話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_____,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세계의 창세신화》, 동방미디어, 2001.
_____, 濟州島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_____, 濟州島의 서사시와 신화 비교 연구, 《탐라문화》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_____, 濟州島 <천지왕본풀이>와 臺灣 布農族 <射日神話>의 比較 研究-射日神話素를 중심으로-, 濟州島 인문주간 신화 모임에서 발표 2008.10.11.

- 문무병, 《濟州島 당신앙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濟州島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9.
- 이경애,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후사(フサ)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제34호, 2009.
-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설문대할망'과 '삼신인'을 중심으로,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정진희, 《濟州島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濟州島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혼인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제주문학사의 연원: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조현설, 동아시아 남매혼신화와 근친상간 금지의 윤리학, 《세계의 창세신화》, 동방미디어, 2001.
- 진성기, 《濟州島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0.
- 현용준, 당국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_____, 月明師兜率歌 背景說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_____, 濟州島 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濟州島무속자료사전》, 각, 2008.

3. 沖繩 宮古島 神話

《球陽》卷一

- 岡正雄, 太陽を射落す話, 『現代のエスプリ』神話, 1970.
- 大林太郎, 『ミルクポトケ(彌勒佛)とサクポトケ(釋迦佛)』, 宮古島 伊良部島 平良 砂川マツ様提供, 岡本通譯, 《伊波普猷全集》月報 5, 平凡社, 1975.
- 福田晃, 犬と女, 『沖繩民俗』十八號, 沖繩縣 宮古郡 邊城町 砂川,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 福田晃, 宮古島の始まり, 沖繩縣宮古郡上野村新里, 『上野村の民話』, 《日本傳説大系》15, みずうみ書房, 1989.

4. 그밖의 저작들

동아일보 국제부편, 《제4세계의 사람들》, 동아출판사, 1994.

Gordon Brotherston, *Book of the Fourth World: Reading the Native Americas through their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부록〕

1. 臺灣 布農族 神話

11. 남매혼신화

太古某個地方有兩個人形但無骨的東西，都是匍匐於地. 有一次來了很多螞蟻，蚊子，蛆等把他們團團圍住，吃驚之下便站起來可以走路了. 這就是最初的男女.

後來二人在溪底徘徊，因疲倦便蹲下來休息. 這時看到兩隻小鳥飛來，離離合合之交尾. 於是知道了交合之道. 後來子孫次第繁殖，因此便禁止兄妹相婚，血緣疏遠的人互結婚姻而分散了.

我社的始祖原是蠻蕃名爲バカ(Baka)，出外打獵來到此地，看到土地非常肥沃. 於是募集許多同志，在道路中央擺一塊大巖石，可以跳過去的人才一起帶來，建了蕃社.²⁶⁾

태초에 어떤 고장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뼈가 없이 형제만 있어서 도시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었다. 일차적으로 많은 개미, 모기, 물 것 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단단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놀라서 일어서서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이 이 세상에 최초의 남녀가 되었다.

뒤에 두 남녀는 시내 밑에 배회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피곤해져서 쭈그리고 쉬게 되었다. 이때에 두 마리의 작은 새가 날아와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교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남녀의 교합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 뒤에 자손들이 점차로 번식하게 되자, 남매의 혼인을 금지하게 되었다. 혈통이 먼 사람들이 혼인하여 흩어져 살게 되었다.

26) 佐山融吉·大西吉壽, 《生蕃傳說集》, 山田重藏書店, 臺北, 1923, 91-92면.

우리 사회의 시조들로 만번의 족속 이름을 바카 Baka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서 이들은 수렵을 하고 이 땅에 살게 되었다. 비옥한 땅을 보고 그곳에서 와서 살게 되었다. 이때에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한 덩어리의 암석을 옮기게 되었는데, 과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모이게 되면서 번족 사회를 세우게 되었다.

12. 射日神話

從前有兩個太陽/ 太陽發出的光非常的熱/ 大人幹活的時候不能把孩子擺在靠近石/頭的地方/ 因為石頭也非常熱/ 他們只好把孩子放在樹蔭底下/ 再用山羊皮遮蓋孩子/ 等幹活了一段時間/ 大人們去看孩子時/ 孩子已經變成蜥蜴²⁷⁾/ 大家非常憤怒/ 決定派人用箭把太陽射下來/ 因為太陽太熱了/ 射太陽的人用樹葉遮蔽太陽/ 但樹葉很快就枯乾了/ 他們最後找到了asik(布農人用以做掃帚的植物)的枝葉/ asik的樹葉也會枯乾, 但不會馬上萎縮/ 所以他們能夠用弓箭瞄準一個/ 太陽, 並且射中了它/ 被射中的太陽變成月亮/ 它比射殺它的人早回到部落裡/ 月亮告訴布農的人說²⁸⁾/ 我就是被你們所射殺的另一個太陽/ 你們從現在開始要舉行各種祭典/ 各種怪異現象就會消失 / 所以布農的許多祭儀都是月亮/ 教導的月亮要排糞²⁹⁾/ 它向衆人說: 誰願

27) 四脚蛇: 도마뱀을 말한다. 아이가 도마뱀으로 변한 것이 태양과 깊은 관련이 있는 motif임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각편1에서도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

28) 복수인 태양이 인간의 활에 하나로 남고, 활에 맞은 태양이 달이 되어서 인간에게 제전을 거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臺灣 포농적 신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태양 2에서 1로, 하나의 태양에서 달로, 달이 제전을 거행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화소이다.

29) 달이 배분을 하는 것은 이상한 화소이다. 똥을 싸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과 무슨 관계인지 의문인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인간에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주는 것이 요점이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각편 1과 각편 2만으로는 선불리 추단하게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각편1에서도 의미가 없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달의 교환, 일월담 등이 서로 연결되었듯이 여기에서도 성기나 어떠한 생산과 관련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생명력을 가진 모티프이다.

意用手接住/ 我的糞/ 沒有人願意去接/ 他們推給一個愚笨的人去接/ 結果沒想到竟然是一堆漂亮/ 美麗的項鍊/ 大家都很羨慕也很懊惱/ 那些前往射太陽的人在出發前/ 曾在家園/ 裡種了橘子樹³⁰⁾/ 當他們回來的時候/ 橘子樹已經長得很高大而且已經/ 結果了

口述者：高天祿(kimat) 78歲, 男

地點：花蓮縣 卓溪鄉 卓溪村 中正部落

時間：1992. 8. 3.

採錄者：李福清, 浦忠成

採錄整理：李福清, 浦忠成, 田哲益

布農羅馬字譯寫：田哲益

이전에 두 개의 태양이 있었다/ 태양이 내는 빛이 너무 뜨거웠다/ 어른들은 일할 때 가까운 돌(바위)에 아이를 놓을 수 없었다/ 돌(바위)도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를 나무 그늘 아래에 놓았다/ 또 산양가족으로 아이를 덮어 주었다/ 얼마동안 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보러 갔을 때/ 아이는 이미 도마뱀으로 변해 있었다/ 모두가 매우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태양을 활로 쏘기로 결정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태양을 쏘는 사람은 나뭇잎으로 태양을 가려야 했다/ 하지만 나뭇잎은 바로 말라버렸다/ 그들은 마지막에 asik잎을 찾아냈다(asik: 布農사람들이 빗자루로 만들어 쏘는 식물)/ asik잎도 말랐지만 바로 시들어 버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 하나를 활로 겨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쏘아 맞추었다/ 활을 맞은 태양은 달로 변화였다/ 달은 자기를 쏘아 죽인 사람들보다 먼저 부락에

30) 橘子樹: 꺾은 무슨 이유 때문에 두 각편 모두에 등장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태양을 쏘려고 가기 전에 심었다고 하는 것인데, 돌아오니 꺾이 열린 것이 요점이다.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도착했다/ 달이 布農族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쏘아 죽인 그 태양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전을 거행해야한다/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布農族의 많은 제의는 모두 달이 가르친 것이다/ 달이 똥을 누려고/ 사람들에게 말하길: “누가 손으로 내 똥을 받겠는가?”/ 가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바보 한 명에게 가서 받도록 떠밀었다/ 뜻밖에도 한 무더기의 예쁘고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모두가 매우 부러웠고 매우 속상했다/ 태양을 쏘러 가기 전에 사람들은 출발 전에 집의 정원에/ 굴나무를 심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굴나무는 이미 매우 크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열려 있었다/

2. 濟州島神話

21. 三姓神話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三神人從地聳出[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肉肉食一日見紫泥封藏木函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函內又有石函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爾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造舟渡海至于耽津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王嘉之稱長子曰星主[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王令淸出胯下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邑號曰耽羅蓋以來時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敬事國家以高爲星主良爲王子夫爲徒上後又改良爲梁 又三國遺事載海東安弘記列九

韓毛羅居四

『高麗史』57卷-志11-地理2

三姓穴 在州南三里 卽古毛興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及在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忍乘雲而去 三人而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徒 高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 始播五穀且牧駒犢就富庶

李元鎮 『耽羅誌』 古跡條

瀛洲太初 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次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擎山望見紫泥 封木函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 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 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出置 金塘之岸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 常以遺歎者歲餘 頃者吾王 登紫霄閣 望氣于西 溟則紫氣連空 瑞色葱朧 中有絕岳降神者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葱乘雲而去莫知所之 三神人卽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就泉甘土肥處射矢卜也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且以後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至十五世孫 厚清季三昆季造船渡海朝于新羅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秦曰異國人來朝之

象也 已而耽羅王來朝新羅王 喜曰予以不德遽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清 令出袴下 愛如己子 名曰王子東宮 季爲徒內 改耽羅 爲南化國各賜衣
冠寶蓋 親送南道車騎輜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以修藩臣
之禮 至厚十二世孫聃服事 百濟聃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不
修朝貢 發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紹聞之遣使乞罪乃止
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耽羅國主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
王子爵 自後世一朝見而未有筮仕 王國者 至維始仕焉

『瀛洲誌』

22. 천지왕본풀이 : 강대원 심방 구연, 베포도업침 중 <천지왕본풀이>

구연자: 강대원 심방

일자 : 2008.11.16 (일)

장소 : 제주시 오라동 공덕암 굿당

조사자 : 김현선 외 3인

[설명] 옛선생 선배들 앞에 그 들어서 들어본 그대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말로]

대신왕 연맞이로 만단연유 축원원정은 넘어근 잇십네다

각신우업전 조상님네 신전님네 신베포도업협서

천권지권~ 어이어허 인왕만군 이알로 예헤이어허 올라 옥황상제엿 대명즈
님 대신왕년맞이로 신도업 제일러 드립네다

내려 천지왕은 어이어허 어 지부왕 스천왕이 됩네다 바구왕은 총명부인님
서수애미근 신도업협서 난산군 본산국 시주낙형 과광선 신을 풀어 올리전
협네다

연날 엿적 여근 수면장제란 양반이 살았수다
 아바님전 뼈 빌고 어머님전 술을 빌어 인간 탄생 허려 어렸실적부며 심술이
 꺾어지어사고

낮녁시 밤녁시 빌루릭진 청풍청세쥌 만경쥌 온갖 어이근 꺾인 행동은 민하
 면서 그 자랍데다

이십스물 넘어사고 좋은 인연 만나근 입장결혼 하여근 살어사 사는 것이 아
 는 삼형제 탄생허고

부모님은 나이 연만되어 늙어사난 수면장제님이 아바님과 어머님전 하루 아
 침 점식 저녁 애상식을 허면서 살아가는 건디 은전답 강전답 좋아지여 사공
 수별감 거느려 사는디,

없는 인생들 이에 곡식굴랑미 쫄을 빌리레 오란허면 죽은 곡식 주어선 산
 곡식을 반곡, 또이에,

말로 밀려 줄적에는 질밀에는 굶은 자갈, 두 번째는 줌진자갈, 세 번째는 에
 이에 흑몰래를 놓아, 그 우에 죽은 곡식 놓아서 말로, 이에 남에게 쫄을 빚쳐
 주고 굴랑미를 주고, 받을 적에는 으문곡식 받아상 이리허여근 살아가다,

“아바지 어머님 나이가 웬만되어지곡 영허여 살다죽영허면은 하루 삼식
 때 상식 헐 것도 걱정이고, 초허를 보름 헐 것도 걱정 되어지곡, 일년은 소상,
 삼년은 대상 헐 것도 걱정 근심이 되여지고 사곡 헐 것도 걱정근심이 되여지
 여사곡, 식계멍질 헐 것도 걱정이 되여지여사근, 아바지 어머님 앞에 하루
 삼때 애상식을 놓다근, 혼끼 줄여 양끼 안내곡, 양끼 줄여 허를 혼끼를 부모
 님 앞에 상을 들려 놓데다.”

영허는 것이 아바지 어머님은 배고파 살 수가 없어지여사고 허난, 허를날은
 수면장제 아바지 어머님이 수면장제 불려 놓고,

“서른얘기야 우리 배고파 살 수 없어 지다. 어떻허난 하루 삼끼 밥을 주단
 혼끼 줄여 양끼 주고, 양끼 줄여 허를 밥을 혼끼 썩 백이 아니주난, 살 수
 없어지다 배고프고 시장허기 벌쳐사고.”

이리허여 말을 허난 수면장제 허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니님아 그런 말 허지맘서. 아바지 어머니님 살다근 이 세상 멩과 녹이 떨어지여산 이리하면은 초흐를 보름도 허여사 헐게고, 흐루 삼끼 애상식도 놓아사 헐거고, 일년 돌상 돌아오면 소상도 허여야 될 거, 삼년은 대상 백일담제도 허여야 될꺼고, 그 끝에는 일년 혼 번 제스 상정월은 송아쭈멩질, 오월은 단오멩질, 팔월은 추석멩질도 허여사만이 될게고, 영허난 무엇으로 아바지 어머니님 산땡에 뭇짜 저승양석까지 먹영가민 험네까. 저싱양석을 덜내여 애상식도 허고, 초흐를 보름도 허고, 일년 돌상, 삼년 돌상, 식계 멩질 허젠허난, 아바님 어머니님 이에 흐루 삼끼 주단 혼 끼만 디렴수다.”

이 말 허난, 수면장제 아바지 어머니님 허는 말이,

“게거들랑 서른에기야 우리 죽영, 애상식도 허지말라, 초흐를 보름 일년 삼년 돌상 담제 식계 제사 삼멩일 허지 마라. 산 때에 배분 밥도 도렌허난.”

“어서걸랑 기영험서.”

영허여 아바지 어머니, 그 말 떨어지난 그때부떠는 흐루 삼끼 그 전과 곶이 하루상식을 노오테다. 농단, 나이 웬만되여 아바지도 죽어 저세상 가고, 어머니님도 죽어 죽어 저세상을 간 후에, 수면장제는 애상식 초흐를 보름 애속이 기일 제스 삼멩일도 아니 하여 사는디,

혼 헨 저승염래왕이 팔월 추석 대멩질 넘엇, 다음 송악쭈 대멩질이 돌아오게 되난, 슬달그믐날은 옥문을 뭇짜 열어 놓고, ‘이엿 인간 드나려 즈순 있는 혼백이라근 즈순집이 강 멩질 반양오고, 즈순 없는 혼백이랑 올레걸멩이라도 응감허여 오라근.’ 허여, 염래대왕이 옥지기를 불러 저싱 슬달 그믐날 옥문을 뭇짜 열어스난 손 있는 혼백 없는 혼백이 이싱디레 드나려 손 후에 염래대왕님이 에이어엇, 옥을 다 돌아보는디 운염소리가 나 지어근, 염래대왕이 가곤보난 늙은 하루방과 할망 둘이 있어 앓안 울엄시난,

“어찌허곡 인간을 도나렴, 에~ 자손 앞이간 송이쭈 대멩질을 받아오랜허였는디 앓아 우느넨.” 허난

“에 우리는,” 수면장제 아바지 어머니 혼백 허는 말씀이,

“인간에 가면 아들도 잇곡 메느리도 잇곡 즈순도 있어도, 우린 저승굴랑

미를 문짝 먹언 죽언 오라부난 우리생각 아니합니다.”

“그거야 무슨 말이 되냐. 남의 집에 강 걸맹이라도 응감허여 오랜허여 옥문을 다 열었는디.”

영허여 그 말들은 염례왕님은 오란, 문서책을 견어보고, 또 이에 천지왕을 불러 인간에 도드려 사고, 수면장제 행실머리 께쌌허남 집안애가 승험조회를 주어두고 오랜허난, 천지왕은 염례대왕 분부를 받아근 인간에 도느려 샅테다.

영하여근 이젠 천지왕이 인간 도나리고, 바구왕 집안에 주인무방을 허여근 샅테다. 바구왕 집안 주인무방을 허난, 바구왕부인 총명주인은 (수면) 옛 천년장제가 주이무방허난, 저녁식스 상 출려놓을 쌀이 없이난 수면장제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근 저녁진지 상을 출려 총명부인이 천지왕 앞에 들러간 노난, 천지왕은 수제를 들엇 밥을 첫순갈 뜨고 입드레 노난 머들이 잇엇 이에 씹어집테다. 과연 천지왕 생각허기를 ‘수면장제 께쌌허덴허연게만은 분명허구나.’ 이리 허여근, 그날밤 누웠다 소피를 보젠허연 밖에 나오고보니 불이 싸진 방이 있고, 굴매는 보난 여잡테다. 언약없이 놀려드는 것이 바구왕 딸 야기 서수암이 앞이 놀려들어 그날밤 인밤새여사고.

뒷날아적에는 어~ 옛 수면장제 집이 승험조회를 불러주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 애상식허는 부엌에 솔이른 솔, 단지른 단지, 저 올레 이문간에 남방 애끼지 문 걸음을 저 마당에 견게허여 갑테다. 걸음 견게허여가난 수면장제 아들이,

“아바님아 저거 볍서, 마당애 솔이 나 걸음 걸음을 허염쑤다.”

영허난, 수면장제 아바진 아들들 보고 허는 말이,

“내여불라, 그거 아짬 점심 저녁, 허두 불은 삼앗 뜨겁고 더우난 건불린 마당애 나오랴구나.”

또로 수면장제 아들이,

“아바님아.”

“무사.”

“저 올레 남방애가 걸음을 걸엄수다.”

“그것도 내여불라. 부중대나민 하도 도구남 절긱대로 찍어불고 못전덴 허난, 흐끔 걸음을 걸어보젠 걸엄신예, 내여불라.

친지왕은 ‘이것도 아니될로구나’, 두 번째는 어떤 승험을 불러주는곤 허난 황밭갈쇠 소양간에 매였는데, 이 소양간 멘쇠 석을 클러 지봉상상 주주멸을 도올려놓고, 흥애깃대 소리 질르면서 지봉 상머루를 앞발로 파곡 빨로 걸러 캐우리게 승험조훔 주어가난.

수면장제 아들이,

“아바님아.”

“무사.”

“저거봅서, 저 밧갈쇠 지봉상머루 도올란 흥애깃치명 앞발로 상머루 파곡 빨리 캐우리곡 허엄수다.”

말을 허난, 수면장제허는 말이로구나.

“내여불라. 더운 한 더위 여름 부중을 하도 부러노난 못전더, 높은 디 올라사곡, 건블림허엄져.”

이말 허난, ‘이것도 아닌 될로구나’. 삼시번젠 친년장제님이 수면장제 머리에 무쇠철망을 씌웠나난, 수면장제가 머리가 무거웁곡 덤곡허난 대천한간, 예 마리 쥐반(???)을 버연 누면서 허는 말이, 큰아들 불러 놓고,

“저기 황개도치 이시난에 그걸로 낮에 가리(???) 머시라.”

큰아들,

“못협데다.”

두 번째 셋아들 불러 놓고,

“황개도치로 나 머릴 깨렌, 벌르렌.”

허난, 둘챌아들도 못허곡, 죽은아들 불러 놓고,

“황개도치로 나 머릴 깨렌.”

허느난, 죽은아들은 황개도치 둘러 받아 황개도치 둘러매여 아바지 머리 우터레 놓젠 허난, 무쇠철망을 친지왕이 걸어봄데다. 걷으는게 날이 저물고 이

허근 또 다시 바구왕집에 간 이레허느난, 이에 바구왕 딸애기 서수애미 허는 말이사,

“옛어 지어근, 삽네다. 천지왕님아 흐룻밤을 새우젠 만지성을 두루는 범, 나허곡 품차리를 주곡 가는 디, 포태를 가져 애기 나민, 처음난 애기는 무엇으로 이름을 짓곡, 두 번째 난 애긴 무엇으로 이름을 지우네겐.”

영허여 말을 허난, 천지왕이 허는 말이,

“처암난 아긴 대별왕 이름짓곡, 두 번째 나온 아들 아기랑 소별왕으로 이름을 지우라.”

서수애미가 쌍둥이를 베었던가 모르쿠다만은 허대, 아홉 열들 춘삭을 채워간다. 천지왕은 예 옥황드레 도올르게 된 때에, 서수애미가 본메본짱을 두고갑센 허난 꼭씨 흔 방울을 내여 두어주고 옥황으로 천지왕이 도올랐수다.

도올라 간지 후에, 옛 서수애미는 아길 낳는 게 아들 성제 납테다. 큰아들은 대별왕 죽은아들은 소별왕 이름을 지와놓고, 또 이것 이 아기들 크어기는 디, 천지왕이 주어두고 간 본메 꼭씨 흔 방울을 저 무땡 앞이 싱거노난 이 꼭이 나는 게 두 줄로 뺨어납테다. 흔 줄을 지봉 우트레 흐늘을 쏘아 도올르고, 흔 가달을 땅으로 줄이 벌어사 갑테다. 현디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 어머니 드투와 쓰움을 허여가는다.

흐를날은 소별왕이 형님을 불러 놓고 허는 말이,

“성님 읍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 드투완 싸을 게 아니고, 예숙젯겜 시거들랑 아버지 어머님 츠지 허기로 험주.”

순허고 올바른 형님은 동생말을 들어,

“어서걸랑 기영허라.”

대답허난, 소별왕이,

“형님아 어떤 나무는 동지선들을 나 가민 잎사귀 떨어지는 낭은 어떤 낭이멍, 잎사귀가 아니 떨어지는 나무는 어떤 낭있네까?”

영허난, 형님 대별왕 허는 말이,

“아이고 서른 동싱아, 그게 무신 말이나. 속이 탕탕 굳은 낭은 동지선들에

도 잎사귀가 아니 떨어지고, 속이 구리고 가벼운 낭은 이에 구시월 단풍 들
엄 떨어지는 것 곱이 잎사귀가 떨어진다.”

영허여 이 말을 허난,

“성님 그런말 허지맙서. 왕대 족대 수리대는 속이 구려도 동지선들에도
잎사귀가 퍼렇게 살아 잇수다. 성님, 나 앞이 예숙 하나 지였수다.”

“기영허냐.”

대별왕 형님은 대답을 허여 잇는다,

“또 읍서, 예숙제끼 허.”

“기여.”

“어떻허여 동산 우에 풀은 메가 즐르고 굴렁에 풀은 메가 집네까?”

대별왕 형님 대답허는 말이,

“아이고 서른 동싱아, 비가 오란 허민 동산 위 거름은 굴렁디레 문짝 내려부
러. 허면은 동산 우이 풀은 메가 즐르곡 동산 아래 풀은 메가 진다.”

“성님 경헌 말 허지맙서. 사름은 머리에 가 우에 많이 잇고 발등맹이 아래
는 풀이 터럭이 하낫두 엇수께.”

이 말 허여두고,

“성님 나 앞에 띤록, 예숙 지였수다.”

“기영허냐.”

그말 끝에엔 소별왕이 삼시 번째,

“성님.”

“무사.”

“읍서 우리 양.”

“어.”

“은세양 늦세양 내뇌근에 그것에 흑담양 꽃씨 싱경, 꽃번성 되는대로 저
승광 이승 아바님광 어머닐 츠지허기로 허젠.”

“어서결랑 기영헉서.”

영허여근 말을 허곡, 소별왕이 은세양 늦세양 갖다 놓고, 그디 흑을 담아

꽃씨 연씨 덮여근 갑테다 예~.

꽃씨를 덮여 사고, 소별왕이 형님 대별왕 보고 허는 말이,
 “옵서, 이제 꽃씨 연씨 덮였시난, 줌이나 잘 게 어떠허우파.”
 영허난 형님 대별왕은
 “어서걸랑 기영허라.”

아시 말허는 대로 옛 잠을 잡테다. 무심코 형님 대별왕은 줌이들어사고, 옛 소별왕 동생은 에 여서잠을 잡테다. 여서잠을 지는디, 소별왕 동생이 깨 고보난 형님은 자고, 형님 앞이 꽃은 번성이 되고, 동생 소별왕 앞이 꽃은 금유울꽃이 되어지여근 산엽테다근, 되어지여 사는디. 솔짜이 형님 모르게 형님 앞이 꽃은 이녁 동생 소별왕 앞이 갖다놓고, 소별왕 앞이 금유울꽃은 형님 앞드레 갖다놓이두영 이에 소별왕도 콧소릿 치명 형님광 곶이 줌을 자 다 깨는 쳇 허면서,

“형님아, 무신 잠을 이레 잠수젠 허난.”

형님 대별왕은 벌써 에 동생 소별왕이 음란헌짓을 허였구나, 알고 두고도 모른척 허여가난, 소별왕이 형님 대별왕 보고,

“형님 꽃은 금유울꽃이 되고 양, 나 꽃은 번성꽃이 되었시난, 형님이랑 저 심을 차지헛서, 난 이심을 차지허쿠다.”

영허여, 소별왕이 말이 끝나난, 형님 대별왕은 소별왕 동생보고 허는 말이,
 “너 이놈아 너 부떠 음란헌 짓 어헛 허였시난, 너 이싱이라 츠지허라만은 허테, 강적 수적 역적 모략 선전 나쁜짓 많이 허는 인생이 날 게라. 나는 저심을 가마.”

영허여, 동생 소별왕은 이심을 츠질허고, 형님 대별왕은 아방국을 찾아 도 올라 삽테다. 아방국을 찾안 간 베려보난 아바진 없어지고, 아바지 타던 용상이 있었구나. 아버지 타던 용상이 있어노난에 형님 대별왕이 아버지 타던 용상 우이 올라 앉으난, 이 용상이 ‘들들’ 울어 갑테다. 들들 울어가난 대별왕 형님은,

“이 용상이 저 용상아 주인모른 용상아 임제모른 용상아, 아무가 앓아도

주인이 되는 거연.”

허머, 용상 뺨 흔 쪽을 딱 때리난, 울던 용상이 가만허여지여샵데다.

영허여 대별왕은 저싱을 츠지허고,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허여 이십데다.

헌디 글찌 후에 몽이 좋고 밋음 좋고 심술 좋은 수면장제가 죽어 저세상을 갑데다. 저세상을 간 이리허난, 그때왕 염려왕이 문서 호적 장적책을 내여놓고 걷곤보난, 인간사난 부모에도 불효여, 각 성친 만민에도 불효로구나, 아바지 어머니 저승양석 떼여먹은 죄여, 옛 남에게 죽은곡석 주어 산 으문곡석 반곡, 옛 따록 말로 줄 적에는 자글 ㄱ, ㄴ명 숨 ㄱ, ㄴ명 흑모래 ㄱ, ㄴ명 굴렁미양석 꺾어주영 옛 말로 받은 죄척이여, 문딱 마련을 헤여놓고 수면장제 혼벽을 불러 염려왕이 허는 말이,

“너는 인간에 나강 허거들랑 이승에서 허인 공덕이 하낫도 엇이난, 불 난 디강 화덕진곤 체스 뒤에 한밭 장태거리 밧안 상 밧고, 사름 죽어 원고향은 신포이 신티양 원은포이 꽃에라근에 수시밥 밧곡, 한밭 장태거리 밧양살라.”

그 옛날은 옛날 불나난 디 꼭 오곡밥을 해서 드었고, 또 수시밥 이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솔에 쫓끌락헌 솔에 오곡밥 허여근에 솔에 순꾸락 걸치곡 이리허여근 대천한간 앞드레 내여 노면은 집안에 구진 살기 콩뿌리곡 버드낭 해단 방안방안 구석구석 문 두드럭 꽤작헌 다음에는 한밭 장태거리도 시 걸명잡식 올레레 내곡 수시밥 허여서 향간에 낭간 우에 앓아 올레레 케우리명 ‘연날에 수면장제 술맹이덜던 하여 먹고 씨고 받고 가렌.’험써 케우리난 법이 잇수다.

천지왕 바구왕 총명부왕 서수애미 대소별왕 수면장제 난산국 본산국 시주낙형 신포였수다 대신시왕연맛이로 내려 대별왕 소별왕 신도업험서, 올라산으로 낭대신 산신대왕 산신백관 산신전 내려스면 물로 청금산 적금산 이에 백금산 흑금산 스만스천 스해용신ㄱ지 대신시왕연맛이로 제청신도업이 외다 에~

3. 宮古島神話

31. 20. 宮古島の始まり, 沖繩縣宮古郡上野村新里, 『上野村の民話』, 《日本傳説大系》 15, みずうみ書房, 1989.

宮古는 아무 것도 없이 평평했다. 원래 섬이란 것도 없고, 만들지 않을 때에 天神이 하계의 섬에 가서 섬을 만들라고 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天神은 끈을 매달아 내려 보냈다. 신의 명령인지라 말씀대로 하려고 내려왔다. 하계의 섬은 단단한 바위뿐인 바다의 바위 같은 곳이라서 다시 올라가서 “아무리해도 하계에서는 도저히 섬을 만들 수 없어요. 바위가 너무 단단하고 흙이 한줌도 없어서”라고 말했다. “어쨌든 하계에서는 섬을 만들 수 없어요.”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우리가 흙은 내려 보내겠다. 다시 내려가거라.”고 신이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대로 내려왔다.

그날부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되면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에 계속 이어지고 비도 그칠 새 없이 내렸다. 밤중에 “우르르 우르르”, 섬광이 번쩍거리는 밤이었다. 그 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 赤土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와 있었다. 하늘에서 宮古로 내려 보냈던 것이다. 다시 올라가서는 “붉은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섬은 만들 수 없습니다.”고 했다. “아, 그런가! 다시 가거라. 우리가 검은 흙을 내려 보내주겠으니”라고 신이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대로 내려왔다.

다시 그날 밤에는 붉은 흙을 내려 보냈던 밤처럼 섬광이 번쩍이고, 천둥이 우르르 광광거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정말 검은 흙이 있었다. 이번엔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래서 우리가 땅을 경작하면 黒土가 있고 그 아래에 赤土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돌이 있을 것이다) “이번엔 섬을 만들 수 있겠군.” 다시 올라가서, “씨앗이 한 톨도 없으니 뭘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씨앗 전부를 어떻게든 나눠 주세요”라고 하자, “좋다”고 하며 여러 곡류의 씨앗 전부를 가져왔다고 한다. 곡류의 씨앗 중, 한 종류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키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맛

있는 것이 있었다) 키인(キイン)을 가져오지 않아서 하늘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것만은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해서, 天神이 말려 놓은 씨앗을 그 딸이 몰래 훔쳐서 아래 속옷 속에 숨겨서 가져왔다.

그런데 훔쳐온 것이라서 달빛이 비칠 때 심었는데 좀처럼 자라지 않았다. 키인은 숨겨서 가져온 것이라서 달밤에는 안되고 캄캄한 밤에 심으면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이다. 그리고 온갖 곡류도 잘 심어 자라게 했다. 이 딸은 섬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너는 처음 만나는 자를 남편으로 삼아라. 누가 걸어오든 그것이 개든 인간이든 처음 만나는 자를 남편으로 맞아라”고 天神이 말했다. “이거, 낭패로군. 어떤 것이 보일까?” 하는데, 宮古에서는 본 적이 없는 小인이 보였다고 한다. 그도 역시 신이라고 한다. 뭐라 형용할 수 없이 작고 못생긴 사람이 땅위에 붙어 있어서 만났으므로, 남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宮古의 섬 만들기가 이루어졌다.

32. 「ミルクポトケ(彌勒佛)とサクポトケ(釋迦佛)」, 宮古島 伊良部島 平良 砂川マツ様提供, 岡本通譯

ツカサヤ(漲水)の神は七八人兄弟だった. ツカサヤの神はミルクポトケ(彌勒佛)と兄弟だった. ミルクポトケは, 宮古に人間應をめよう, 人間を育てなくてはならないと, 唐からやって榮た神である. ミルクポトケは布袋さまのように이었다が,サクポトケ(釋迦佛)という美男子のもいた.

ミルクポトケは天地の間を上下して, 人間, 牛, 馬, 山羊, 豚などきとし生けるものすべてを天から地上にした.サクポトケは地上にいて, 降ってくるものを受ける役目だった.

はじめミルクポトケが人間の男女を降したとき, 當時, 人間には, チビ[ちび, 성기 또는 씹?]의穴はあるが尻尾があつたので, 何も性行爲ができず, どうしたら人間を殖やせるかわからなかった.そこでミルクポトケは人間をも

う一度天に上げ、尻尾を切ってから、また宮古島に降した。そしたら性行爲できて、人間が殖えた。

人間は野原岳のクバの木の下に、つまり宮古島で一番高いところに降って来た。ミルクポトケも、このクバの木を傳って天地の間を上下した。このクバの木が枯れると、天から鬼が下って来て人間を食べてしまらという。

人間が動くの手傳わせるために、ミルクポトケは動物も天から降した。ミルクポトケが馬に、人間と一緒に働くかと尋ねたところ、働くと言ったので、馬を野原に降してやつた。牛に、人間をどうやって手傳うことができるかと尋ねたところ、牛は人間が作ったものを食べると答えたので、竹を削いで尖らした上に牛を下した。そこで牛の蹄は二つに裂けた。この蹄が裂けたところに物がはさまるので、牛は馬のように早く走れず、遅くなった。

このようにミルクポトケとサクポトはツカサヤで相談して、人間も動物も天からしたが、ミルクポトケはもう一度天に上つて、天から粟、苧、麥、米の趣子物をした。人間はものを食べるので糞をする。そのために種子物を下した。これによって人間は人間となった。

またミルクポトケは唐に行つて、バンジロー、ミカン、イチゴ、ダミ、山ブドウの種子、いろいろの花の種子をもって来た。昔は宮古では、遠くに行くにも、近に行くにも、路傍の果物を食べれば腹が一杯になった。

ミルクポトケとサクポトケは、この島を何と命名しようかと相談したが、ミルクポトケは、人間すべてに満足であれば、ミヤーク(宮古)と名をつけるのがよい。ミヤークと名づければ、永代都になり榮えて行くと言つた。そこでミヤークと命名した。これほど昔は世がさかんであった。

その後、サクポトケは、この島を私が治めようとミルクポトケに言つたが、ミルクポトケ、“私はが人間をつくり、種子を下し、ミヤークと命名したのだから、私が島を守るべきだ、貴方は唐に行け”と言ひ、二人はツカサヤで譲証したが、決まらなかった。

そこでミルクポトケは、二人で花を咲かせる競争をして決めよう提案し

た. 牧丹の花をめいめいが持って来て置き, 花咲かせの勝負をすることになったが, ミルクポトケには, 居睡りのがおった. サクポトケは知徳がおったて, ミルクポトケに居睡りをさせ, その間に, 咲かない自分の花を咲いたミルクポトケの花と取り換えた.

ミルクポトケは眠りならさめて, 自分が敗けたことを知った. そこで仕方がないので唐に行くことになった. 唐には何もないので, ミルクポトケは宮古から花も何もみな唐に持ってかなか行って, 唐を運んにした. 宮古には, ミルクポトケが唐に持って行かなかった, アダン, バンヅロー, 九年母, 野イチゴ, グンしか残されなった. 昔, 豊見親が唐に行ったところ, 向らにあもろは, 皆かつて宮古にあったものだということを聞いたという.

《伊波普猷全集》月報 9, 昭和50年 1975年 11月號.

치카사야(漲水, 또는 츠카사야라고도 발음하는데 일종의 신사나 산의 이름이고, 이곳에 있는 신은 뱀이기 일췌여서 우리나라의 아래자설화의 아래자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래서 漲水神社 또는 漲水御岳 등의 명칭이 존재한다.)의 신은 일곱 형제였다. 치카사야(漲水)의 신은 彌勒과 형제였다. 彌勒은 미야코 섬에서 인간을 번식시키려면 인간을 기르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고 하여 唐에서 보내 온 신이다. 彌勒 포대같이 추한 신이었는데 釋迦라고 하는 아름다운 남자 신도 있었다.

彌勒은 천지 사이를 오르내리며 인간, 소, 산양, 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釋迦는 지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彌勒이 인간의 남녀를 내려 보냈을 때 당시 인간에게는 성기의 구멍은 있었으나 꼬리가 있어 전혀 성행위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 번 하늘로 데려가 꼬리를 끊고서 다시 미야코 섬으로 내려 보냈다. 그렇게 해서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은 번식했다.

인간은 노하라(野原) 산의 구바나무 아래, 즉 미야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내려왔다. 彌勒도 이 구바나무를 통해 천지 사이를 오르내렸다. 이 구바나무가 말라 죽자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와 인간을 잡아먹어 버렸다고 한다.

인간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彌勒은 동물도 하늘에서 내려 보냈다. 彌勒이 말에게 인간과 함께 일할 것인가 하고 문자 일을 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말을 들판으로 내려 보내 주었다. 소에게 인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고 문자 소는 인간이 만든 것을 먹는다고 대답해서 대나무를 깎아 날카롭게 된 위로 소를 내려 보냈다. 그래서 소 발굽은 돌로 갈라졌다. 이 발굽이 갈라진 곳에 물질이 끼여 소는 말처럼 빨리 달리 못하고 느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彌勒과 釋迦는 치카사야(漲水)에게 상의해서 인간도 동물도 하늘에서 내려 보냈는데, 彌勒은 또 한 번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밤, 띠, 보리, 쌀의 씨앗을 내려 보냈다. 인간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똥을 누다. 그 때문에 씨 있는 물건을 내려 보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彌勒은 唐에 가서 반지로, 굴, 딸기, 수유나무, 산포도의 씨앗과 여러 가지 꽃의 씨앗을 가지고 왔다. 옛날 미야코에서는 멀리 가도 밭에 가도 길 옆의 과일을 먹으면 배가 잔뜩 불렀다.

彌勒과 釋迦는 이 섬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의논했는데 彌勒은 인간이 모두 만족하고 있으면 미야코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했다. 미야코라고 이름 붙이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야코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옛날에는 미야코가 번영했었다.

그 후 釋迦는 이 섬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고 彌勒에게 말했는데 彌勒은, “내가 인간을 데려오고 종자를 내려 보내고 미야코라고 명명했으니까 내가 섬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당신은 唐으로 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치카사야(漲水)에게 의논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彌勒은 둘이서 꽃피우기를 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彌勒에게는 조는 버릇이 있었다. 釋迦는 지혜가 있어서 彌勒을 즐게 한 다음 그

순간에 피지 않은 자신의 꽃을 피어 있는 彌勒의 꽃과 바꾸었다.

彌勒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唐으로 가게 되었다. 彌勒은 唐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미야코에서 꽃이랑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唐을 번성시켰다. 미야코에는 彌勒이 唐으로 가지고 가지 않은 아단, 반시로, 구년모(九年母), 산딸기, 수유나무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옛날 도요미신(豐見親)이 唐에 갔을 때 앞에 있는 것은 모두 이전에 미야코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Oral poetry and Myth
Oguisaenam-gut of South Coast

— Focused on the Comparison to The Bunun of Taiwan, Jeju island of
Korea and Miyakojima

Kim, Heon-Seon*

Oral poetry and Myth of The Bunun of Taiwan, Jeju island of Korea and Miyakojima are important issue as A Comparative Mythology. The main subject of A Comparative Mythology has been biased toward focusing on special political leader and some complete myth and oral-poetry until now. so We need to convert the view. This study pursue to restore the cultural initiative of diverse constituent members and focus on myth and oral-poetry of moirority race as the forth world. This study choice three semples to campare, The Bunun of Taiwan, Jeju island of Korea and Miyakojima.

Finally This study reach to the new understanding about genuine hisotorical development through seeking the hidden side of myth and oral-poetry. The Bunun of Taiwan, Jeju island of Korea and Miyakojima of japan was ousted from political power namely sovereignty but they have been had abundant myth and oral-poetry.

We can draw an inference Myth and oral-poetry is very important method as an alternative history filled with their memorial and unique thought. so We know the myth and oral-poetry of moirority race has

* Kyonggi University Prof.

genuine worth and restore the initiative of myth of them.

Key Words

The Bunun of Taiwan, Jeju island, Miyakojima, moinority race as the forth world, The initiative of myth

교신 : 김현선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kimheonseon@hanmail.net 전화 : 031-249-9108)

논문투고일 2009. 11. 20.

심사완료일 2010. 02. 11.

계재확정일 2010. 02. 17.